Life p/15

이재현 형량 낮아질듯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제3299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1962.11 (+27.91)

코스닥 668.29 (+7.62)

금리(국고채 3년) 1.68 (+0.01)

환율(원·달러) 1192.50 (−1.00)

애플 또 혁신, 불길한 삼성

'포스터치' 아이폰6S 글로벌 히트 예감 어정쩡한 삼성폰, 전략부재 지속땐 위험

스마트폰 실적 악화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100조원을 밑돈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와 아이패드 프로 등의 등장으로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저가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샤오미와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 사이에서 점점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를 출시했지만 애플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펜'의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갤럭시노트5를 지난 8월 출시했지만 소비자 사이에선 노트만의 특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갤럭시노트5 시리즈는 출시 3일 만에 7만5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반응은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이는 애플이 10일 발표한 아이폰6S 시리즈(위쪽 사진)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한 대리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5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 사실이지만 2~3년 전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갤럭시노트5 시리즈보다 아이폰6S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더 많다"고 말했다.

애플이 선보인 아이폰6S 시리즈는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디자인은 지난해 아이폰6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성능과 기능 면에서는 대폭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애플은 화면을 터치하는 압력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포스터치' 기술을 기반으로 한 '3D 터치' 기술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기존 스마트폰에 탑재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애플의 새 아이폰은 기존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줄 것"이라며 "인터페이스 기능 추가로 수많은 앱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TV, 새로운 운영체제 등을 공개하며 생태계 구축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박기흥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 시리즈(노트5+엣지플러스) 출시에 따른 출하량 증가는 기존 갤럭시S6 시리즈의 부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조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7(가칭)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S7에 모바일 사업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이폰6S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드웨어적으로 많은 변화가 없었지만 아이폰6S의 하반기 판매대수는 전년 아이폰6보다 17% 증가한 7900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글로벌 이동사들의 보수적 마케팅 전략은 오히려 보조금이 아이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유발해 아이폰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아이폰6S 플러스가 안드로이드폰 점유율을 더욱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샤오미가 국내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어 안방 시장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스마트폰 직구 사이트를 운영하는 3KH는 9일 샤오미 '홍미노트2'를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홍미노트2'는 미디어텍 헬리오 X10옥타코어 프로세서, 5.5인치 풀HD 디스플레이,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 3060mAh의 탈착형 배터리 탑재로 고사양이지만 가격대가 낮아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KH는 홈페이지에서 SK텔레콤 가입으로 '홍미노트2'를 9만원에, '홍미노트2 프라임'은 12만5000원에 판매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먹튀논란 홈플러스 도성환, 배임 피소

"로열티, 대출이자 과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도성환 사장(사진)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형법 제355조'의 배임행위와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포탈이다.

홈플러스는 2013년 도 사장의 취임 전까지 테스코(사장 데이브 루이스)에 매출액의 0.03% 수준인 30억~40억원을 라이선스 사용 로열티 명목으로 지불해 왔다.

하지만 2013년 8월 도 사장 취임 후 홈플러스는 테스코와 새로운 로열티 계약을 체결, 연간 500억~600억원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다.

변경된 로열티 지급비율은 매출액의 0.8%로 전보다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홈플러스는 2012년 테스코에 로열티로 30억원을 지불했다. 이후 2013년 616억원, 2014년 585억원을 주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행위로 홈플러스의 자산이 상당액 테스코로 넘어갔으며, 과대한 로열티 지급으로 과세대상법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테스코로부터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이 재직했던 2010년 12월 홈플러스가 발행한 회사채의 금리는 3년 만기 기준 3.55%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인 AA-등급 회사의 평균 금리인 4.19%보다 0.64%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도 사장이 취임한 후인 2013년 9~12월 발행된 4차례의 홈플러스 회사채 금리는 3.65~3.66%로 2013년 AA-의 평균 금리인 3.26%보다 약 0.4%포인트가 높다.

회사채를 발행한 상대는 테스코의 금융계열사인 'Cheshunt Overseas LLP'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때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는 "도 사장이 부임하고 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기존의 스무 배가 넘는 로열티가 테스코에 지급됐다.

2년 동안 11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분명한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강규혁 위원장은 "(도 사장에게) 이번 일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도 사장의 재취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성환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테스코가 먹튀로 표현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협의해서 세금은 모두 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An administration for small businesses? or an administration for conglomerate?

중소기업청? 재벌들러리청?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administration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small sized businesses is in fact helping large businesses violate small businesses' market area.

Han jung-hwa, the commissioner of the administration is recently an eyesore after participating in business agreement ceremony of a large business.

There are some criticisms arose about board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Majority of them are from cooperative company of a large organization and, for this reason, it is assumed that those members are not being really supportive for small businesses.

Although many of small distribution dealers are forced out on the street due to the large businesses that are entering into the market, the solution that the administration gives is restructure of business.

Officials say that "The administration is not only for the small businesses. We have to take care of medium sized businesses as well as small sized businesses. We always make efforts to support them both. It just takes some time to handle all the works due to a lack of manpower."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을 위한 취지로 설립된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중소상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정화 청장은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대기업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업청장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2년 설립된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의 임원들이 대기업 1차 협력사 소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도 맡아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식자재 유통시장에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며 중소유통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중기청이 내놓은 방안은 '사업조정신청' 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소상공인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모두 살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답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

▲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사정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기사를 포털이 인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포털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사 언론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는 재벌의 문제 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 새정치민주연합내 비노무현계 인사들이 10일 문재인 대표에게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전날 문 대표의 재신임 승부수에 대한 맞불로 평가된다.

국제

▲ **애플**이 삼성전자 등 경쟁자들의 장점을 전면 수용하는 변신으로 스티브 잡스의 고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새로 공개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두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무덤 속 잡스가 돌아누울 것"이라고 촌평했다.

▲ **헝가리**의 한 방송사 여기자가 난민아이들에게 발차기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세계가 공분하고 있다. 헝가리는 현재 난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난민들에게 굴욕의 땅이 되고 있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

▲ **중국** 당국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 불법 송금 등의 외환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통제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 이용자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 농협으로부터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신상수**(58)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 **돌고래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자대교 밑에서 10일 오후 발견됐다.

▲ **국회사무처**가 국회공무원(직업 공무원)의 로스쿨교육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매년 수만 명이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10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1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일반부 마네킹 창작쪽머리 경기에서 참가자들이 솜씨를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와 아이패드 프로 등의 등장으로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10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SK가 주도하는 스타트업과 창조경제의 결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FCA코리아가 10일 지프 브랜드 최초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를 출시했다.

▲ **포드코리아**가 높은 금리의 할부금융사를 전속금융사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도성환 사장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형법 제355조'의 배임행위와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포탈이다.

▲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됐다. CJ그룹은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이 회장이 실형확정은 피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내심 기대를 거는 눈치다.

▲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알코올 도수 16.9도의 소주 '참이슬 16.9'를 출시, 부산지역 공략에 나선다.

▲ **미래에셋증권**이 100%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으로 KDB대우증권을 인수할 의사를 밝혔다. 인수에 성공하면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한다. 하지만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루사이 주가는 17.56% 급락했다.

▲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09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8조5000억원), 6월(8조1000억원) 증가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발표한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바깥에서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실리나

2012년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가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폭실험 갑자기 중단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
탄도미사일 발사에 촉각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고폭실험 현황을 묻는 질문에 "금년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고폭실험은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소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은 그동안 활발하게 고폭실험을 해 왔다. 1980년 후반부터 평양시 용덕동의 고폭실험장에서 100여차례 이상의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고폭실험 중단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일본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핵폭탄을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한다는 목적이 있어 과학자들이 핵폭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핵실험을 요청하는 것 같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실험 단행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페리 전 장관의 예상보다 북한의 핵탄두 기술이 진전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고폭실험장의 폭발구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폭발구 변화와 함께 고폭실험이 중지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자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다종화, 소형화, 정밀화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크게 보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에 대해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다만 플루토늄량 기준으로 탄두 수보다는 몇 기 정도로 추정하는 식"이라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kg으로 치고 핵탄두 1기 만드는 데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플루토늄 6kg이 들어간다면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천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사정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그런 예상을 국내외서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 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에 비춰 8·25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 즈음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무덤 속 잡스가 돌아누울 '애플의 변신'

매출 노리고 '잡스의 터부' 깨

애플이 삼성전자 등 경쟁자들의 장점을 전면 수용하는 변신으로 스티브 잡스의 고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새로 공개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두고 미국 월스리트저널(WSJ)은 "무덤 속 잡스가 돌아누울 것"이라고 촌평했다.

9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엄에서 가진 특별 행사를 통해 스티브 잡스가 혐오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춘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폰6S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는 화면 크기가 무려 12.9인치(대각선 기준)에 달해 iOS 운영체계를 쓰는 기기 가운데 가장 크다. 또 '애플 펜슬'이란 이름의 터치펜까지 갖췄다. 모두 생전 잡스가 혐오했던 요소들이다. 기존 제품인 아이패드 에어는10인치 미만이어야 한다는 잡스의 고집대로 9.7인치, 아이패드 미니는 9.9인치였고, 터치펜도 없었다. WSJ는 "큰 화면에 키보드와 터치펜까지 딸린 것을 보면 무덤 속 잡스가 돌아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패드 프로의 큰 화면은 기업 업무용 시장을 노렸다는 평가다. WSJ는 아이패드 매출이 최근 1년 반 동안 감소세를 지속하자 애플이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승부수로 전문 직업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신제품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잡스는 생전 아이폰 화면 크기도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인 3.5인치 이내를 고집했다. 후계자인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지난해 4.7인치 아이폰6과 5.5인치 아이폰6플러스를 내놓았고, 이날도 기존 크기를 고집한 채 터치 기능 등을 강화한 아이폰6S를 내놓았다.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다른 외신들도 WSJ와 다르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애플 자신의 타부를 깨뜨렸다"고 평가했다. 경제잡지 패스트컴퍼니는 아이패드의 변신에 대해 "디자이너, 건축가, 사진사, 편집인 등 그래픽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아이패드 프로의 터치펜과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큰 화면이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

돌고래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발견

150t을 들어올릴 수 있는 480t급 크레인 바지선 동아150호가 9일 오후 사고 선박 돌고래호(9.77t)의 파손 부위 정밀검사 등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 선박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돌고래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자대교 밑에서 10일 오후 발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따르면 이날 오후 4시28분께 추자도 예초리 추자대교 아래에서 돌고래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 1구를 해경 경비함정이 발견해 수습했다.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난 지 닷새만이고, 시신 10구가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나흘만이다. 해경은 시신을 제주항으로 이송해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고래호에는 모두 21명이 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6일 3명이 구조되고 10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이 돌고래호 실종자가 맞다면 남은 실종자는 7명으로 줄게 된다. 전남 해남선적의 9.77톤급 낚시어선인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저녁 해남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추자도를 출발했다가 전복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날도 경비함정과 항공기, 저인망어선 등을 동원해 추자도 부근 해역에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군부대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색구역을 제주도 해안까지 확대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주해경본부를 잠시 들러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난민 아이들을 걷어차는 헝가리 카메라우먼. /사진=유튜브

난민아이들 걷어찬 카메라우먼

헝가리, 난민 '짐승' 취급

헝가리의 한 방송사 여기자가 난민아이들에게 발차기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세계가 공분하고 있다.

10일 미국 CNN의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헝가리 N1TV의 카메라기자 페트라 라슬로는 지난 8일(현지시간) 세르비아 접경지역 뢰스케에 있는 임시 난민수용소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난민들을 방송용 카메라로 찍던 중 자기 앞쪽에서 달려가던 아이를 안은 한 난민 남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 쓰러진 남자가 항의하자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라슬로의 행위는 현장에 있던 독일 RTL TV 채널 기자가 찍어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알려지게 됐다. 라슬로는 또 헝가리 경찰에 쫓겨 달아나는 난민 아이들을 걷어차기도 했다. 이 장면은 헝가리 주요 뉴스 웹사이트를 통해 방송됐다.

헝가리는 현재 난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난민들에게 굴욕의 땅이 되고 있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

/송시우 기자

與 "포털기사에 기업 아우성" 재벌과 한 목소리

재벌 문제제기 그대로 수용
기업 홍보맨과 간담회 예정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기사를 포털이 인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포털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사 언론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는 재벌의 문제 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새 1인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언론사에서 기업관련 보도를 하고 포털에서 그냥 여과없이 기사를 게재하고 이것을 미끼로 광고 협찬을 강요하는 문제로 기업들이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포털의 새로운 부조리 문화가 근절돼야하다. 포털의 기사게재가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오른쪽 두 번째)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사실상 1인 언론사들이 있다. 인터넷 언론사 같은 곳에서 기업 관련 보도를 하고, 이를 포털에서 여과 없이 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미끼로 광고, 협찬을 강요해 기업들이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포털의 왜곡, 과장과 비윤리성, 선정성,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침범이 도를 넘었다. 양대 포털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야당의 전방위적 로비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지만 4개 상임위의 증인 채택에 야당의 입장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윤영찬 이사와 이병선 이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포털이 편집·게재한 기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해당 언론사뿐 아니라 포털도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 홍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포털을 통한 무분별한 기사 게재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은 올해 재벌이 주장해 온 내용의 복사판이다.

지난 5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사이비언론을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사이비언론이란 김 대표가 말한 광고협찬을 강요한다는 언론이다.

한때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이비언론은 포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광고주협회 쪽의 입김이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광고주협회는 재벌의 대변단체다. 포털 규제의 뒤에 재벌이 있다는 폭로인 셈이다.

지난 7월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이란 이름으로 열린 세미나 이후 나타난 현상은 민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세미나에서 곽혁 광고주협회 상무는 "인터넷 신문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책임에는 등록과 설립절차가 쉽다는 법적 문제와 포털의 뉴스제휴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말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를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변화로 비주류 비판언론의 기사는 독자들이 접하기 힘든 상황이다.

광고주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광고총연합회·한국광고산업협회·한국광고학회 등과 함께 지난 3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새누리당은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표를 통해 포털이 인위적으로 새누리당과 정부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10일 재벌이 청원했다는 사이비언론 문제를 들고 나왔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새정치, 14일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총선 놓고 정치적 중립 위반"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거 주무부처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부총리는 그보다 하루 전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송병형 기자

신동빈·윤영찬·이병선, 국감 증인 채택

<롯데그룹 회장> <네이버 이사> <다음카카오 이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신 회장은 당초 관련 상임위원들이 앞다퉈 증인 신청을 했지만 여야가 정무위 한곳의 증인으로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출석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국감 막바지 종합국감에서 부르자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출석을 주장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관철됐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드라이브와 관련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보면 정무위 증인은 41명, 참고인은 9명이다.

17일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신 회장 외에도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 회장 출석시기 힘겨루기
새정치, 17일 출석 주장 관철
새누리, 포털 규제에 힘 실어

21일 산업은행 국감에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무위는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뒤 지난 7월 정무위 파행사태의 당사자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 등의 유감 표명이 있었다. 당시 신회장의 출석 시기를 두고 강 의원과 정 위원장이 고성을 주고받다가 결국 정무위가 파행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롯데가 한국 기업이다. 롯데의 지배구조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롯데를 향한 국민의 질타·불신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신 회장이 공정거래위(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롯데에게도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것에 위원장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그날 얘기하는 과정은 여당 위원들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이었고 제 생각이 이렇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증인은 통과시키자는 것을 위원장에 얘기했고, 회의를 속개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후 국정감사가 여야 간사가 협의하는 과정을 각 의원들이 협조해주고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여러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오늘 채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농협 특혜대출' 신상수 구속

檢, 횡령·사기 혐의 정치권 수사 확대 전망

농협으로부터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신상수(58)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0일 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신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재무건전성과 리조트 분양 실적을 부풀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리솜리조트그룹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농협에서 1649억원을 차입해 14%인 235억원을 상환했다.

영업적자와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2010년 이후에도 농협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대출을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신 회장은 지난달 27일과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농협 수뇌부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혜대출 의혹과 별개로 농협유통-NH개발-협력업체로 이어지는 하청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농협 수뇌부가 비정상적 거래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무료 책 배포' 김성제 무죄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종교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제(54·사진) 경기 의왕시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친분이 없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책을 준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7명에게만 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고, 책을 받은 이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도 예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미란 기자

가을꽃에 내려앉은 나비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10일 강원 춘천시 중앙로 화단 꽃밭에서 나비가 내려앉아 있다. /연합뉴스

'기업비리 혐의' 이재현, 파기환송

고법서 다시 재판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제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 15면

/유선준 기자 rsunjun@

국회공무원에 '무료 로스쿨교육 추진' 논란

국회사무처, 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노조 "혈세로 공무원 변호사자격 취득 지원 부당"

국회사무처가 국회공무원(직업공무원)에게 무료로 로스쿨교육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말 국회공보에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안은 7급 이상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 로스쿨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급여도 지급된다.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 내규 개정안에는 로스쿨 교육 대상을 '7급 이상'으로 정했지만, 명확한 선발기준 없이 '조직 기여도'로 했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는 5급 입법고시 출신 국회공무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등 정치권은 이번 제도와 무관하다.

국회사무처는 개정안 공고에서 "입법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실정에 맞는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교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서 직업 공무원 개인의 변호사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국회사무처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또 이미 변호사를 별도로 임용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이나 로스쿨 교육을 시키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정부부처에서라면 이같은 특혜성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행정부 인사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로스쿨 파견제도를 앞서 도입한 국방부는 이러한 안팎의 지적을 받아 올해를 끝으로 이 제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 측은 "국회의원의 입법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전문가가 필요해 로스쿨 교육훈련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공무원 로스쿨 교육훈련 내규는 11일까지 국회사무처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장 결재만 받으면 즉시 시행된다. 입법예고기간에 국민의 반대가 많으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행정부 입법예고와 차이가 있다. /연미란 기자

자살사이트 운영자 자살방조 혐의 처벌 방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의 자살 사이트나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내사해 자살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단,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살행위자가 실제 행위에 착수해야 한다.

경찰은 아울러 전국의 사이버수사관,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등 SNS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자살유해정보의 개인간 공유에 대해 자체 감시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올해 들어 이달 현재 자살 의심 신고가 37건 접수됐고, 이중 자살 시도자 3명을 구조했다. 나머지는 자살예방센터 등 상담전문기관에 연계하거나 가족에 통보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한명숙 집행 연기' 공방

"황제 집행" VS "야당 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집행 연기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황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법무부 국감에서 김 의원은 "만약 내가 의정활동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내발로 들어가겠다"며 운을 뗀 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준 것에 대해 "검찰이 우롱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황제 노역, 황제 접견 말이 많은데 '황제집행이란 말도 나올 상황"이라며 "정말 부득이하게 신변을 정리하려면 그럴 수 있지만 한 전 총리가 집행 연기 기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봉하마을 등을 방문했다.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확인해 보지 않았다. (수감 연기) 요청사유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가 몇 번이나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움직이고 있다"며 "검찰에서 정치인 관련 사건은 숙려기간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게 작년에 나온 사건이고 민사관결문에 취업청탁 사실이 다 기재돼 있다. 9월이 다 되도록 무엇을 검토한 것이냐"며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장관은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의원이 취업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판결문에 문제가 있어 항소했는데도 법사위에서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야당 망신주기,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만호가 1심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짓말했다' 고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의아한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집행을 사흘 연기, 같은 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연미란 기자

매년 3만여명, 벌금 못내 노역장 신세

지원제도 있지만 유명무실

매년 수만 명이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에 따르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을 선택한 사람이 지난 한해동안 3만7692명에 달했다.

관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야하는 벌금형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에서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노역장 신세를 진 사람은 2011년 3만4361명, 2012년 3만5449명, 2013년 3만573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6월)까지 3만209명이 누적돼 4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납부에 대한 연기 신청도 있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실조정 건수 중 연기 신청률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분납·납부 연기제도가 있으나 법률이 아닌 검찰 집행 사무규칙으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신청요건도 엄격해 신청률이 저조하다. 납 대상 확대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경찰 공무원 범죄 해마다 ↑

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
지자체 공무원 범죄는↓

지난해 공무원 범죄는 줄었지만 경찰 관련 범죄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순으로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전체의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9899건에서 2014년 9361건으로 5% 가량 감소했다. 반면 경찰청과 법무부 등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소방방재청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건, 법제처와 국무총리실이 2건으로 낮은 순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780건으로 경기 750건, 전남 538건, 서울 527건, 경북 446건, 강원 434건, 경남 365건, 전북 29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수가 13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공공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에서 범죄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고시촌→1인가구촌' 서울역사박물관 신림동 청춘展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신림동 청춘 – 고시촌의 일상' 전시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의 역사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전시회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박지원 "박지만 증인 출석 전 검찰이 협박성 전화"

"담당 검사가 사건 덮으려 해"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 관련, 박지만(57) EG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검찰이 '진술 내용에 따라서 박 회장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박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며 "사실상 협박이다. 검찰을 움직여서 대통령 동생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이 누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검찰 내부에서 실제 그랬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사건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윤석민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사건무마 대가로 금품을 준 황모(구속수감)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담당 검사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갚고 화해를 해야만 당신(황씨)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며 "담당 검사가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보고 받기로는 공여자가 진술 일체를 거부했다고 들었다. 다시 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연미란 기자

'비위' 검사·검찰 70%, 경고·주의에 그쳐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와 검찰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총 298명이었다.

이 중 파면 징계는 17명, 해임은 19명, 정직은 51명으로 30.1%에 해당하는 9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70%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이 저지른 유형별 비위혐의는 품위위반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58명), 금품이나 향응 수수(51명), 규정위반(41명)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비위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228명에 달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4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미란 기자

이게 뭐야?
라고 묻는 사람과
수소수 디스펜서!
라고 답하는

당신의 겸손

작고 강력한 스마트 수소수기
수소수 디스펜서
SHD-100

수소수 디스펜서 ▼ 검색

컬러 와인 / 그레이 중 선택

대한아토피협회 우수 추천 제품

6중 티타늄백금 수소생성장치 특허기술

깨끗한 물과 수소의 만남_내 몸을 웃게 하는 차원이 다른 수소수를 경험하세요!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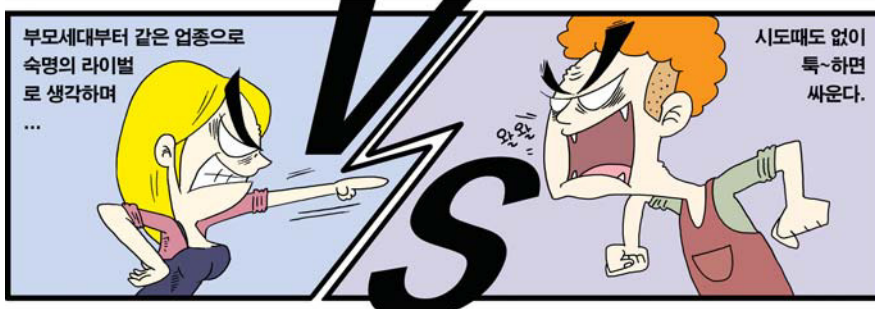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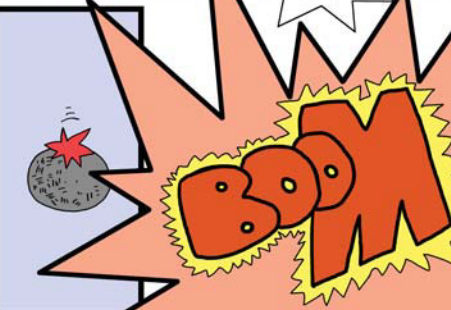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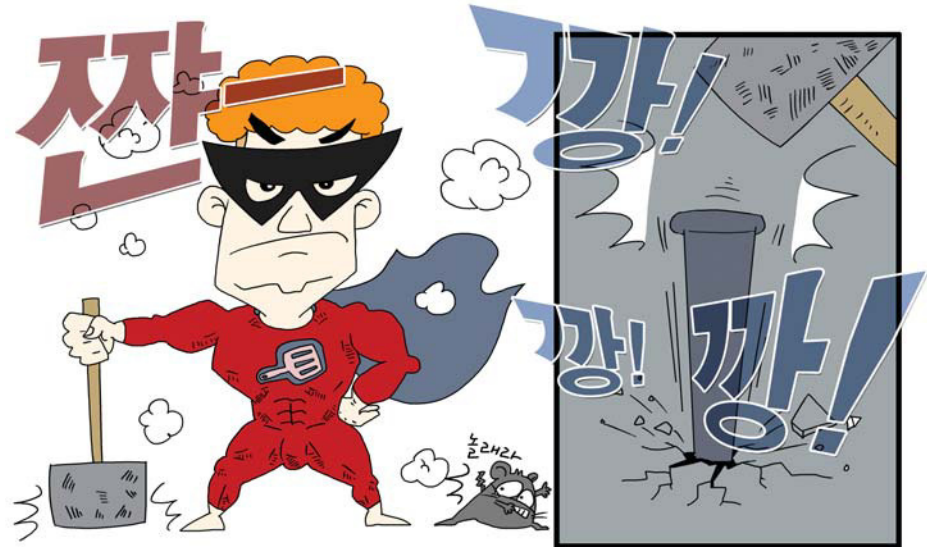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_2O)에서 산소(O_2)와 수소(H_2)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솔고 수소수 생성기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600-2020** 대리점 및 기술이전 문의 1588-0275 |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14-서울중구-0505호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13화 교통방해와 자구행위>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7717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천막이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며 지적도를 들이대고 따지며 철거를 요청하지만 도미자는 꿈쩍도 안한다.

자기 소유지인 등기부를 보여주며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음을 내비치고 끝내 둘은 몸싸움을..

전병헌 "LGU+, 미군에 불법 보조금 지원"

공시지원금 대비 2배… 내국인 차별 논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불법적인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LG유플러스 협력사인 'LB휴넷' 명의의 법인 고객으로 등록하고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LB휴넷은 지난 6월까지 주한미군이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단말 개통 시 자사 법인 명의를 미군 실사용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해왔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기간은 9개월, 12개월, 24개월 등으로 LG유플러스는 9개월마다 국내 전입대 근무하다 다시 자국으로 복귀하는 2000여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방식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보조금을 통해 LB휴넷 법인 고객으로 가입하고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를 해왔다.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는 9개월 약정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주한미군은 LG유플러스로부터 9개월 약정 보조금으로 23만7000원을 받았다. 국내 이용자는 24개월에 29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는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주한미군에게만 공시지원금 대비 2배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LB휴넷 법인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주한미군이 사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불일치 할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아야 한다는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인(대리점)명의로 4대를 초과해 개통할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고 "24개월 약정 기준 공시 지원금을 주한미군에게도 내국인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않고 9개월 또는 12개월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9개월이나 12개월의 주둔기간이 만료된 주한미군이 단말기 할부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한 9·12·24개월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이용자 할부기간이 일시불, 24개월, 30개월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 복합기, 2015 썸머 어워드 '최우수 제품상'

'멀티익스프레스 7시리즈'

삼성전는 자사 복합기가 미국의 사무기기 전문 평가기관인 '바이어스랩'의 2015년 '썸머 픽 어워드에서 8개의 '최우수 제품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이어스랩'은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등 사무기기의 기술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픽 어워드'를 개최해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을 수상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바이어스랩 2015 썸머 어워드' 수여식을 진행하고, A3 컬러·흑백 복합기 부문 7개와 A4 흑백 복합기 부문 1개에서 '최우수 제품상'을 받으며 복합기 기술 역량을 공인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삼성의 A3 고속 복합기 라인업인 '멀티익스프레스 7시리즈'는 31~40ppm, 41~50ppm, 51~60ppm 부문에서 6개 전 제품이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김용제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개발팀 팀장 부사장(왼쪽)과 미국 사무기기 전문 평가기관 바이어스랩게리 오루크 디렉터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중고속 복합기인 'K4350LX'는 A3 흑백 복합기 31~40ppm부문에서 '최우수 제품상'을 수상했다. 삼성 스마트 프로 익스프레스 시리즈 라인업의 A4 흑백 복합기 'M4580FX'는 '중소기업을 위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조지 미코레이 바이어스랩 선임 에디터는 "삼성전자의 A3 복합기 7종 모두 탁월한 출력 품질을 구현한다"며 "특히 멀티익스프레스 7시리즈의 흑백 복합기 3개 제품은 모든 출력 품질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스캔 속도도 경쟁 제품보다 2~3배 빠르다"고 평가했다.

송성원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전략마케팅팀 팀장 전무는 "이번 수상으로 기업향 삼성 복합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 시작했다"며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에게 완벽한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삼성 '커브드 모니터' 판매 3만대 돌파 기념 사은행사

최대 8만5000원까지 보상 할인·사은품 증정 행사도

삼성전자는 올해 커브드 모니터 판매 3만대 돌파를 기념해 10월 말까지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삼성전자는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최대 8만5000원까지 보상하는 보상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커브드 모니터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구형 모니터를 반납하면 모델에 따라 보상혜택을 제공한다.

커브드 모니터 구매한 뒤 반납하는 모니터의 브랜드, 제조일자, 크기에 제한이 없으며 불량인 모니터도 1만원의 보상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보상판매 행사를 통해 삼성 커브드 모니터를 구매한 고객은 제품 배송, 설치할 때 구형 모니터를 반납하면 된다.

삼성전자 모델이 2015년 커브드 모니터 판매 3만대 돌파 기념 사은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또 커브드 TV 모니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커브드 모니터를 파격적인 가격에 추가 구매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하이마트와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행사기간 동안 27형 커브드 TV 모니터(T27D590C)를 구매하는 고객은 24형 커브드 모니터(S24E510)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삼성 디지털프라자는 9월 한달 동안 27형 커브드 모니터(S27E510C)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출시한 34형 SE790C 모델을 포함해 8종의 커브드 모니터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커브드 모니터는 화면 중앙과 가장자리 간의 시청거리 변화가 적어 눈의 피로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며, 삼성전자는 독일 TUV 라인란드로부터 눈에 편안한 화질 성능을 검증 받았다.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화면 깜빡임을 없애주는 '플리커 프리(Flicker Free)' 기능과 눈에 피로를 주는 블루 라이트를 감소시키는 '아이 세이버 모드'가 탑재됐다. /조한진 기자

스웨덴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라르스 엘메레드(오른쪽 앞 줄 네 번째) 부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10일 대전센터에서 운영실태를 둘러본 뒤 임종태 대전센터장(오른쪽 세 번째) 등 센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 제공

스웨덴 국회의원들 대전서 창조경제 '열공'

첫 해외 국회의원 방문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센터)를 찾아 SK가 주도하는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과 창조경제의 결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스웨덴 국회 산업통상위원회(The Committee on Industry and Trade) 라르스 엘메레드 부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10일 대전센터를 방문했다.

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위원회는 스웨덴의 무역과 에너지 사업 정책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 지난 6일 한국 산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했다. 국내 대기업의 기술연구소와 한국 내 스웨덴 기업 등 산업현장을 둘러 본 뒤 12일 출국할 예정이다.

대전센터 방문은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성과에 기반한 창업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스웨덴은 2008년 연구혁신법안을 통해 지역혁신기관(Innovation Office) 프로그램을 시작,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12개 혁신기관을 설립·운영 중이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모델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창업으로 연계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엘메레드 부위원장은 "우리가 매우 흥미로웠던 부분은 정부와 함께 대전센터가 카이스트 출신의 우수한 청년들과 함께 기업가 정신, 미래를 위한 혁신을 공유하면서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디테일을 알게 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종태 대전센터장은 "창조경제와 창조경제센터가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방문"이라며 "이를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연계해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흥미를 표시하며 다양한 질문을 쏟아 냈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

FAC코리아, 소형 SUV '올 뉴 지프 레니게이드' 출시

"미니 컨트리맨, 오프로드서 붙어보자"

안전·편의사양 독보적
국내용 500대 물량확보
향후 월 200대 판매목표

FCA코리아가 10일 지프 브랜드 최초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를 출시했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 차종으로는 미니 컨트리맨을 지목했다.

파블로 로쏘 FCA코리아 대표는 이날 서울 가양동 한일물류센터에서 신차를 발표하며 "소형 SUV 시장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모델은 없다"고 말했다.

또 "미니 컨트리맨은 미니 쿠퍼의 큰 모델이고 닛산 쥬크는 외형만 SUV로 도심주행만 가능하다. 푸조 2008은 왜건 모델"이라며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야말로 온오프로드 주행이 모두 가능한 소형 SUV"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형 지프 레니게이드는 미니 컨트리맨과 비교했을 때 안전, 편의사양이 독보적이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670만원 규모"라며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해당 모델 성공으로 국내 런칭도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우선 한국 시장 공급 물량으로 500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시 전부터 이미 100대 넘는 계약이 이뤄졌다"며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물량공급이 원활해지면 월 200대 이상 판매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레니게이드 모델 중 오프로드에 특화된 트레일호크의 국내 출시 가능성은 높다"며 "피아트 500X는 내년에 출시한다"고 전했다.

사측에 따르면 지프는 올-뉴 레니게이드의 출시로 소형 SUV부터 준중형 컴패스, 중형 체로키, 대형 그랜드 체로키, 정통 오프로더 랭글러로 이어지는 제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신형 레니게이드의 국내 출시 차량은 △전륜구동(FWD) 모델인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 론지튜드 2.4 가솔린'과 △4륜구동 모델인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 론지튜드 2.0 디젤 AWD'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 리미티드 2.0 디젤 AWD' 등 3개 트림이다.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2.0L 터보 디젤 엔진(리미티드 2.0 AWD·론지튜드 2.0 AWD)과 △최고출력 175마력, 최대토크 23.5kg·m의 2.4L 멀티에어2 타이거샤크 가솔린 엔진(론지튜드 2.4 FWD)을 탑재했다.

유럽 스타일로 세팅된 서스펜션은 기존 모델 대비 민첩하고 정교한 핸들링을 제공한다. 유니바디 차체 구조는 안정적인 오프로딩과 코너링을 돕는다.

최첨단 지능형 4×4 시스템인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 로우는 고속 주행 시 차체 흔들림을 줄여준다.

동급 최초로 로우-레인지 기능을 적용해 20대 1의 크롤비(crawl ratio)를 통해 험로 주파력을 제공한다.

9단 자동변속기와 지프 셀렉-터레인 지형설정 시스템은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 로우 시스템과 연동돼 주행 성능을 향상시킨다.

FCA코리아는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5% 전체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인하 혜택을 별도로 제공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적용되는 가격은 론지튜드 2.4는 3280만원, 론지튜드 2.0 AWD는 3790만원, 리미티드 2.0 AWD는 4190만원이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포드, 금리 비싼 금융사 전속계약 논란

아주캐피탈 할부금리 15%
3~12%p 금리차로 수익 내

포드 올 뉴 몬데오 /포드 제공

포드코리아가 수입차 업계에서도 높은 금리의 할부금융사를 전속금융사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포드가 전속금융사로 선정한 아주캐피탈의 할부금리는 7월 31일 기준으로 6~15%였다. 아주캐피탈은 7월 2회에 걸쳐 13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를 조달했다. 당시 회사채 조달금리는 약 3.1% 수준이었다. 8월에는 3회에 걸쳐 13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를 조달했다. 회사채 조달금리는 약 2.57% 수준이었다.

아주캐피탈의 포드·링컨 파이낸셜 서비스는 약 3~12%포인트가 높은 금리차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이다. 업계에서는 포드 할부금융사의 금리가 경쟁사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포드의 공식 딜러 선인자동차와 협업했던 JB우리캐피탈의 할부금리는 7월 31일 기준 0~13.8%로 아주캐피탈보다 낮은 수준이다. 링컨·포드 등의 할부금융 프로모션을 운영했던 BNK캐피탈의 할부금리도 5.1~11.1%로 아주캐피탈보다 낮았다.

포드에 따르면 아주캐피탈은 포드 차량에 대한 단독 프로모션을 실시할 수 있는 전속금융사다.

포드 딜러사 관계자는 "아주캐피탈이 전속으로 포드와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단독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금융사는 비슷한 경쟁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캐피탈의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는 9월 동안 세단 몬데오에 대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지나치게 높은 할부금리와 6월 이후 급감하고 있는 포드 판매량이 맞물려 향후 판매량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포드의 판매량은 6월 1120대를 기록한 이후 7월 908대, 8월 496대로 급감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7월 249대가 팔렸지만 8월 16대로 급감했다. 4월 출시된 신형 몬데오의 경우에는 7월 204대에서 8월 145대로 판매량이 줄었다. /정용기 기자 yonggi@

2015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현대차, 보도현장 열기 고스란히 전한다

15일 홈페이지서 생중계

현대자동차는 2015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보도발표회 현장을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를 통해 고성능 브랜드 N을 공식 런칭한다.

또 차세대 i20 랠리카, 콘셉트카 'RM15', 'N 비전 그란 투리스모' 쇼카 등을 전시하며 고성능차 개발 방향성을 소개한다.

현대차는 15일 오후 6시 15분부터 45분까지 약 30분가량 브랜드 홈페이지(brand.hyundai.com), 기업문화홍보 홈페이지(pr.hyundai.com),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을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올해로 66회를 맞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15일 언론 공개일을 시작으로 17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열린다.

전세계 39개국 1103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신차와 차세대 자동차 신기술을 선보인다.

/이정필 기자

BMW, 뉴 7시리즈·뉴 X1 세계 최초 공개
한국타이어, 미래형 컨셉타이어 3종 전시

BMW와 한국타이어가 1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모터쇼(IAA)에 참가해 자사의 제품을 전시한다.

BMW 전시공간은 2개 층, 1만2000㎡의 면적으로 구성됐다.

서킷에 통합된 무대에서는 BMW와 미니의 기술·제품 등을 일 20회씩 쇼 형태로 관람객들에게 소개한다.

BMW는 이번 IAA에서 플래그십 뉴 7시리즈와 2세대 뉴 X1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또 BMW eDrive 기술을 접목시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BMW 뉴 740e, 뉴 330e, 뉴 225xe 액티브투어러 등도 선보인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독일 포르츠하임 대학교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미래형 컨셉 타이어 3종을 전시한다.

이 컨셉 타이어는 사막화,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 상황에서 타이어의 역할을 반영해 개발됐다.

또 '더 넥스트 드라이빙 랩'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마인드 리딩 타이어 차량 등을 전시한다.

유럽 시장을 겨냥해 만든 겨울용 타이어 신상품 2종도 공개한다. 한국타이어는 이를 통해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SKT, 광고플랫폼 '스마트 사이니지' 오픈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실시간 전송·모니터링 가능

SK텔레콤이 정보전달·광고를 담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디지털 스크린에 재생하는 매체 플랫폼인 '스마트 사이니지'를 10일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하는 스마트 사이니지는 안드로이드 셋톱박스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 스케줄, 전송, 재생 기능을 손쉽게 제공한다. 매장, 옥외 광고판 등 다양한 장소의 디바이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스마트 사이니지는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와 달리 콘텐츠 실시간 전송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유지관리 편리성 ▲손쉬운 컨텐츠 확보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운영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유지관리 측면에서 스마트 사이니지는 본사에서 매장별, 디스플레이별 모니터링과 함께 콘텐츠 재생, 스케줄링, 업데이트 등 원격 시스템 관리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스마트 사이니지는 개방형 플랫폼으로써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모든 하드웨어 제조사,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이 손쉽게 탑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개발자용 인터페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사이니지 국내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스마트 사이니지 출시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초보자도 손쉬운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을 위한 템플릿 제공과 유투브, BTV 등의 일반영상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공한다. 또 이미지, 텍스트, SNS 연동 등 목적에 맞는 화면 분할·활용 기능도 지원한다.

스마트 사이니지는 SK텔레콤 기업고객사이트인 'www.biztworld.c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주식회사 C&C '제3회 BP사 CEO세미나' 열어

IT의 미래와 시사점 주제

SK주식회사 C&C는 10일 경기도 분당 사옥에서 2015년 제3회 BP사 CEO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즈니스 파트너(BP)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T의 미래와 시사점 ▲SK주식회사 C&C와 BP사 간 공동협력 기반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BP사 대표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Insight)를 높이기 위해 'IT의 미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10일 경기도 분당 SK주식회사 C&C 사옥에서 열린 제3회 BP사 CEO세미나에서 이지효 베인앤컴퍼니 강사가 협력사 CEO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 제공

이날 특강에서 이지효 베인앤컴퍼니 강사는 "세상의 다양한 산업이 ICT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ICT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IT사업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변신해야 하는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풍욱 SK주식회사 C&C 구매본부장은 "기술 변화의 시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을 BP사와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SK주식회사 C&C와 함께 격변하는 ICT 트렌드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특강 이후 이어진 공동협력 기반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공유 시간에서는 2014년, 2015년 두 차례 진행됐던 'BP사 비즈 아이디어 페스티발'을 통해 수상했던 사업들의 성과와 협업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정문경 기자

SKT·KT 'DJSI 월드' 나란히 편입

지속가능경영 인정받아

KT와 SK텔레콤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에 나란히 편입되며 지속가능경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에서 발표된 DJSI에서 KT는 6년 연속, SK텔레콤은 8년 연속으로 DJSI 월드에 편입됐다.

미국 S&P다우존스와 스위스 로베코샘이 1999년 공동 개발한 DJSI는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이다.

유동자산 시가총액 기준 세계 2500대 기업을 평가해 상위 10%를 편입하는 'DJSI 월드', 아시아지역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아시아퍼시픽', 국내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코리아' 등으로 나뉜다.

올해는 전 세계 통신업체 가운데 9개 기업이 DJSI 월드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SK텔레콤은 아시아 통신 기업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8년 연속 DJSI 월드에 편입되며 지역 내 최고 통신사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SK텔레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이사회 독립성과 지배구조, 고객중심 경영, 고객정보 보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경영, 브랜드 경영, 위기 관리, 통신 서비스 영향 연구 등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유·무선 통신 분야 전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인더스트리 리더'로도 함께 선정됐다.

KT는 유·무선 통신을 넘어 스마트에너지, 통합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등의 분야에서 통신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문경 기자

잘못 낸 통신비 1000억원… 이통사 '모르쇠'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별다른 환급 노력없이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094억원에 달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136만건이다.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1위 사업자인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는 59억원, LG유플러스는 35억원이었다.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200만건으로 이 중 825억원 상당의 1616만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문경 기자

아시아나항공, 국립 오페라단과 업무제휴 협약

아시아나항공은 국립 오페라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로 아시아나는 향후 국립 오페라단의 항공 이용 시 여객·화물 운임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는 홈페이지, 기내지, 회원 안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립 오페라단의 공연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 오페라단은 해외공연을 위한 출장 시 아시아나 항공편을 우선 이용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 20%가 할인된다. 또한 오페라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공연 무료 초대권 증정(연 3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9일 김학민 국립 오페라단 예술 감독(왼쪽)이 두성국 아시아나 상무와 예술의 전당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두 상무는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는 국립 오페라단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날개가 되겠다"며 "고객에게 오페라 관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lyasiana.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용기 기자 yonggi@

SK컴즈, 사명 '네이트'로 내달 초 주총서 의결 예정

SK커뮤니케이션즈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트로 법인명을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새롭게 출발할 ㈜네이트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iHQ와 콘텐츠 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인 웹과 모바일 기반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한 네이트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콘텐츠+뉴미디어'의 융합 시장을 선도해 나갈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콘텐츠 제작·미디어·웹·모바일 플랫폼을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본격 성장해 간다는 방침이다.

/정문경 기자

미래에셋證 '용감한 도전'에 주가 폭락

대우증권 인수 목표 대규모 유상증자
"수익성 담보 안되고 실패 시 주주가치 하락"

미래에셋증권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규 조달한 금액으로 KDB대우증권을 인수, '리딩 증권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대다수 증권사들은 유상증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대우증권 인수 실패 가능성을 점치며 목표가를 낮췄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6850원(17.56%) 떨어진 3만2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3만10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미래에셋증권은 오후 들어 대우증권 인수설과 관련해 "매각 공고 전이라 지분 매각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장의 다양한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인해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내용"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미 대우증권 인수에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어 하락중인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고 1조2067억원 규모의 유상·무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발행주식의 100%인 4395만8609주를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보통주 1주당 0.3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별도)자기자본 2조4476억원 대비 49.3%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3조7000억원까지 늘어나 NH투자증권(4조4000억원)과 대우증권(4조2000억원)에 이어 자본금 기준 업계 3위 증권사가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유증으로 확보한 자금을 현재 매물로 나온 대우증권 인수전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은행(IB)의 강자 대우증권을 인수할 경우 미래에셋의 자산관리영업부문과 IB 장점이 결합된 초대형 증권사가 된다.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에 대해 '용감한 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경우 7조원이 넘는 자본을 가진 초대형 증권사로서 증권업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증자 후 주당순이익(EPS)은 4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우증권 인수 여부가 불확실한 점이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며 목표가를 3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아예 목표가 산정을 보류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아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위할 주요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대우증권 인수 실패 시 떨어진 주주가치를 만회할 만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도 "대규모 유상증자가 상당 기간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7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려잡았다.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는 초대형 증권사 탄생이라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며 "적극적인 위험 인수와 투자기회 창출의 역량을 보유했고 각자 다른 강점을 가져 상호 보완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지난달, 銀 가계대출 8조원 가까이 증가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잔액이 1320조원대에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을 합한 잔액은 132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 가계대출은 609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8조5000억원), 6월(8조1000억원) 증가폭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8조5000억원, 5월 7조3000억원, 6월 8조1000억원, 7월 7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달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8월까지의 증가액은 4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연중 증가액인 37조3000억원보다 벌써 10조원 가량 웃돈다.

낮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빚을 내 주택을 거래하는 가계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600건으로 2006~2014년 8월중 평균 거래량인 4800건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태 기자 folium@

기관 매수세, 코스피 1962.11로 마감 10일 오후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증시 현황판 앞을 오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1934.20) 보다 27.91포인트(1.44%) 오른 1962.11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전일 대비 7.62포인트(1.15%) 오른 668.29에 거래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생보재단, 부평구와 생보어린이집 건립 '맞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0일 재단 회의실에서 인천시 부평구와 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 허현주 부평구 정부어린이집연합회장, 이숙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부평생명보험어린이집은 생명보험재단이 13번째로 건립하는 어린이집이다. 인천시 부평구가 제공한 어린이집 건립부지에 79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집이 건립될 부평구 청천동 지역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3.1%에 불과해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구 도심지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와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10일 재단 회의실에서 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 제공

유석쟁 전무는 "생명보험어린이집은 민·관 협력사업의 선진모델로써 보육환경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저축은행 영업구역 외 점포설치 금지

금융위, 몸집 불리기 제동
부실저축銀 인수·합병 예외

앞으로 저축은행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바깥에서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외 지역에는 점포 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비조합원들에게 나가는 대출 한도를 줄여 외형 확대를 막을 계획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의 3분의 1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줄수 있고 농협도 대출잔액의 절반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상호금융사가 받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폐지되고 내년 중에는 5%, 2017년 중에는 9%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역·서민 중심의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에게는 신규점포 설치 시 쌓아야 할 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 실적을 의무대출 비율 산정시 우대적용하고, 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한 상호금융사에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20% 유지' 의무를 1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영상 부담을 줬던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는 완화되고 개인고객 최대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향상 조정된다. 자기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은 동인인 대출을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신협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기금 출연이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사를 통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기태 기자

프리미엄／수익형상가

소액투자 수익형 상가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내 상가로써 분양면적 780㎡전용면적 440㎡의 상가.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이있다. **급매가 11억** (수익률 년 7.2%) 현금3억원매수가능, 소액투자자한테 적합한상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앞 빌딩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위치한건물 대지 340㎡ 연면적 1100㎡ 현재 보증금 2억9천, 월 1700만원 임대료발생, 전층 근생업종이 입주해있고 의정부 핵심 상권인 신세계백화점 입구에위치 유동인구 최고의 상권임. **매매가 45억원**

핫 ! 이슈

홍익대학교 임대용 빌딩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한 임대수익용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510㎡ 연면적 270㎡의 부동산이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급매가 72억원

종로대로변 임대용빌딩

1호선 동묘역 출구 대로변코너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 540㎡ 연면적 1800㎡의 건물로써 병원등 우량한 임차업종이 입주해있다. 현재 보증금 9억원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매매가격 95억원

강동구 임대용빌딩

강동구 상업지역에 입지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10㎡ 연면적 3,300 ㎡의 건물 현재 보증금 8억원에 월 약6,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전층 병원 및 유명 프렌차이즈등이 입주해있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매물이다 .

매매가격 120억원

2호선 강남역빌딩

국내 최고 상권인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대기업등의 업무시설,어학원 및 근생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대지면적 340㎡ 연면적 2,000㎡ 근생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8억 6,000만원 월 7,8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매매가격 150억원

논현역 대로변 빌딩

7호선 논현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490㎡ 연면적 1,600㎡의 빌딩으로써 현재 보증금 3억2,000만원 월 3,1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
성형외과, 피부과등의 병원, 또는 사옥용으로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05억원

의정부시 을지대 병원앞 빌딩

현재 최고의 지기 상승 및 미래가치가 보장된 **을지대학교 신축부지앞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05㎡ 연면적 1200㎡의 임대용 건물이다.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의 임대 수익이발생. 향후 을지대학교및 부속병원이 완공될시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이 기대된다. 전층 근생업종 입주. **급매가 36억원**

길동역 , 대수선용빌딩

길동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대지면적 720㎡ 연면적 2,2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5억4,000만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 외벽 및 실내를 대수선공사 완료시 보증금 7억5,000만원 , 월 5,7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가격 110억원

2호선 봉천역출구 사옥 및 병원용빌딩

대지면적 530 ㎡연면적 2,000 ㎡ 의 건물로써 **2호선 봉천역 출구 대로변 코너에 위치 .** 사옥, 또는 병원등에 적합한 건물이다 . 현재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임대료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매매가 80억원**

문의전화 : 02)557-1027 / 010-5273-3985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프리미엄·역세권 / 빌딩·상가 매매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문의 : 010-9000-1782**

역삼역 역세권 수익용 신축빌딩

역삼역 3분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상권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520㎡, 건물 2,00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6억5,000만원, 월수익 6,400만원이 나온다. 신축건물이며 우량한 임차인구성으로 공실이 없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 매매가는 150억이다.

신논현역 메인상권 수익용 근생빌딩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메인상권 코너에 위치한 수익용 근생빌딩이다.대지 440㎡, 건물 1,600㎡, 지상6층 빌딩이며 보증금 6억4천만원에 월수익 6,500만원 정도다.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모든 임차업종이 근생으로 이루어져 공실염려가 전혀 없는 빌딩이고 매매가는 165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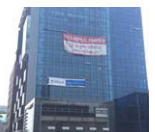
청량리 초역세권 대로변 급매각 빌딩

청량리역 앞 대로변 위치하여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은 임대용 급매빌딩이다. 대지 420㎡, 건물 1,100㎡, 지상5층이며 보증금 5억에 월수익 2,500만원 정도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개발호재 등 투자가치가 있는 빌딩이다. 매도인 사정상 급매로 진행하며 매입 후 임대관리 및 향후 신축시 수익성 및 투자가치를 급상승 시킬 수 있는 빌딩이고 매가는 58억이다.

역삼역 임대수익용 빌딩

역삼역 1분거리에 위치한 공실없는 임대수익용 빌딩이다. 대지 500㎡, 건물 1,250㎡, 지하1층 지상4층 근생빌딩임. 주변 프랜차이즈 식당 및 커피숍 등이 즐비한 활성화된 상권에 입지하였다. 보증금 4억 월수익 2,900만원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건물 상태는 최상이며 매가는 72억이다.

논현역 출구 앞 강남대로변 신축빌딩

논현역 출구 바로앞 광대로변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 대지 370㎡, 건물 2,85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약14억에 월수익 8,200만원 정도이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위주로 임차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가는 220억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동시에 향후 분당선 연장개발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희소성있는 특A급 빌딩이다.

대치동 사옥 겸 임대수익용 빌딩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사옥 및 임대용 빌딩이다. 대지 440㎡ 건물 1700㎡, 8층 건물이며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일부 사옥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학원 등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사옥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전체 임대수익용 빌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익률은 5%정도이며 매가는 110억이다.

강남역이면 구조조정 임대용 빌딩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 바로이면에 위치한 법인 구조조정 임대용빌딩이다.
대지 350㎡ 건물 2,000㎡ 지상10층 빌딩이며 현재 공실은 없으며 월수익 5200만원이고 수익률은 5.5% 정도이다. 법인 소유의 빌딩으로 사정상 주변 거래시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가는 110억이다.

고수익용 분양상가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분양상가 건물이다.분양면적 780㎡이며 현재 스크린골프업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으로 장기임차 중에 있다. 수익률은 8%이상이다. 주변지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향후 투자가치도 예상된다.

중고차 매매

- **싼타페DM 2륜 프리미엄 13년 1월 크림색**
  완전무사고 썬루프 정품네비 45000km (매매/2600)
- **더 뉴 아반떼 LPI 흰색**
  완전무사고 15년형식 35000km (매매/1160)
- **제네시스 모던 13년 4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후카 1만km (매매/3250)
- **뉴카렌스 GX 최고급형 검정**
  완전무사고 78000km (매매/900)
- **싼타페 CM SLX고급 흰색**
  썬루프 네비 스마트버튼 완전무사고 15만km (매매/1050)
- **더 뉴 아반떼LPI 검정**
  완전무사고 15년형식 47000km (매매/1160)
- **에쿠스 380 프레스티지 검정**
  완전무사고 15년 3월 네비 뒷좌석TV 6천km (매매/8550)
- **그랜져HG 240 검정**
  완전무사고 12년 2월 네비 후카 51000km (매매/2200)
- **카니발R 9인승 12년 7월 은색**
  완전무사고 네비 자동문 VDC 6만km (매매/2040)
- **더 뉴 K9 GDI VIP 14년 11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3천km (매매/6100)
- **스마트 흰색**
  완전무사고 14년 9월 2천km (매매/2330)
- **BMW 520D 12년 5월 검정**
  완전무사고 썬 네비 49000km (매매/4000)

문의 010-2727-5622

택지지구 내 오피스텔 수익률 기준금리 4배

2017년까지 추가지정 없어 희소성 높아
일부 단지 1000만원 이상 프리미엄 형성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를 지속하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기존 택지지구 내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1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각각 5.49%, 5.99%, 6.98%다. 이는 현재 기준금리(1.5%)보다 4배가량 높은 수익률이다.

이중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택지지구 오피스텔의 경우 수요가 높다. 지난 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은 172실 모집에 7만2639건이 접수돼 오피스텔 사상 최고인 4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7월 분양한 '광교 아이파크'는 21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위례 역시 지난해 말 공급된 '위례 오벨리스크'가 평균 56.3대 1을 기록했고, 부천옥길지구에서는 '부천 옥길자이' 오피스텔이 계약 4일만에 완판됐다.

택지지구 오피스텔 분양권에는 웃돈도 붙었다. 지난해 광교에서 분양된 '광교센트럴 푸르지오시티'의 전용면적 31㎡는 1000만원의 프리미엄 붙어 거래되고 있다. 위례에 공급된'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24㎡도 1000만원 웃돈이 붙었다.

올 하반기에도 택지지구 내 막바지 오피스텔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신영은 이달에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업무개발 3지구에 '광교 지웰홈스'를 공급한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9~84㎡ 196실 규모다. 인근에 위치한 광교테크노밸리로 통근이 수월하다. 도보거리에 새빛초교를 비롯해 상현중, 상현고가 위치해 있다.

택지지구 내 분양 예정 오피스텔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 실	분양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 2블록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st	20~84	1420	10월
수원 광교신도시 업무개발 3지구	광교 지웰홈스	59~84	196	9월
화성동탄2신도시 C17블록	동탄린스트라우스 2차	미정	332	11월
강릉 유천지구 C6-4블록	강릉 유천 올림피아	20~39	274	9월

같은 달 동아토건은 강릉 유천지구 C6-4블록에 '강릉 유천 올림피아'를 공급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20~39㎡ 총 274실 규모다. 강릉 IC가 약 10분대에 진입 가능하며, 오는 2017년에는 KTX강릉역도 들어선다. 강릉시청이 가깝고, 롯데주류 강릉공장 등의 업무지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효성은 오는 10월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 2블록에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The First'를 분양할 예정이다. 미사강변도시에 최초로 공급되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면적 20~84㎡ 1420실로 구성됐다.

강동첨단산업단지, 유니온스퀘어(2016년 예정), 엔지니어링복합단지(2017년 완공예정)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2018년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들어선다. 올림픽대로와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 선동IC와 미사IC, 강일IC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한강과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오는 11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17블록에 '동탄린스트라우스2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총 332실로 구성된다. 태봉산이 단지와 맞붙어 있고, 왕배산도 가깝다.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지지구 오피스텔의 경우 도로와 학교, 편의시설 등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인근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대부분 업무·산업단지와도 가까워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률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택지지구 지정을 미룬 만큼 희소성도 높아져 당분간 택지지구내 오피스텔의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10일 브루나이 도로국 본부에서 '템부롱(Temburong) 교량 3구간 공사' 계약식이 열렸다. 김동수(왼쪽) 대림산업 사장이 공동도급사인 존 토 스위(SWEE) 회장과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브루나이서 2100억원 규모 수주

대림산업
템부롱 교량 3구간 공사 해상 특수 기술력 인정

대림산업은 10일(현지시간)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위치한 도로국 본부에서 2100억원 규모의 템부롱(Temburong) 교량 3구간 공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발주처인 브루나이 국토개발부 장관과 조원명 주브루나이 대사,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브루나이 만(Brunie Bay)인 무아라 지역과 템부롱 지역을 연결하는 공사다. 전체 공사비는 2조원으로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건설 사업이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3구간은 탑이 하나인 1주탑 사장교와 주탑이 두 개인 2주탑 사장교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1주탑의 높이는 107m, 2주탑은 110.5m로 설계됐다. 공사기간은 약 41개월이다.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은 "이번 수주는 대림의 해상 특수 교량 기술력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서해대교와 이순신대교 건설을 통해 완성한 해상 특수 교량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현재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사장교인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를 시공 중이다. 지난 2월에는 템부롱 교량사업 중 하나인 13.65㎞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2공구 공사를 4830억원에 수주했다.

/김형석 기자

청약경쟁률 최고 81대 1… 전 주택형 1순위 마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호'
한강·응봉산 더블조망 인기 68가구 모집에 1227명 몰려

힐스테이트 금호' 견본주택 방문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금호 20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금호'가 최고 81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9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27명이 몰렸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84㎡C 타입의 경우 7가구 공급에 568명이 접수했다.

이 밖에 84㎡D타입은 37.0대 1의 경쟁률(5가구 공급, 185명 청약)을 기록했다. 114㎡A·B타입의 경우 각각 7.07대1(27가구 공급, 191명 청약)과 4.43대1(14가구 공급, 62명 청약)을, 141㎡타입은 1.27대1의 경쟁률(15가구 공급, 19명 청약)을 보였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 15개동, 전용면적 59~141㎡ 총 606 규모(일반분양분 73가구)다. 인근 응봉산과 한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더블 조망권 단지다.

분양관계자는 "한강과 응봉산의 더블 조망권과 넓고 고급스러운 평면 구성이 높은 청약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기대 이상의 호응에 힘입어 곧 있을 계약접수에서도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후 분양일정은 오는 16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계약접수는 21~23일이다. /김형석 기자

창원서 1순위 청약 최초 3만명 돌파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
평균 73.96대 1로 전체 마감

롯데건설이 경남 창원에 공급하는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3.9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9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총 4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4537명이 몰렸다. 창원시에서 1순위 청약자가 3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면적 100㎡의 경우 4가구 모집에 599명이 청약 신청해 최고경쟁률인 149.75대 1을 기록했다. 84㎡B는 244가구 모집에 1만7998명이 청약해 73.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84㎡A(66대 1)과 59㎡(109.68) 등 총 4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됐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100㎡ 총 1184가구 규모다. 마산삼성병원, 사화협동화단지가 가깝고 차로 마산자유무역지역까지 10분, LG전자 창원공장과 STX중공업이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까지 20분내에 이동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아파트 공급 가뭄에 시달려 오고 있던 창원시 내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대기수요자가 많아 분양 전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마산시 상권과 창원시 상권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입지와 대단지 커뮤니티, 자사의 차별화된 설계와 조경이 호평을 받아 많은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6일이며, 계약은 21~23일이다. 견본주택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71-8번지에 마련됐다. /김형석 기자

'파기환송'에 한숨돌린 CJ

CJ "형량 재고 기회 다행"
파기환송심서 형량 줄 듯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사진·55)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됐다.

CJ그룹은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이 회장이 실형확정을 피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감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내심 기대를 거는 눈치다.

대법원 2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그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시름 놓게 됐다.

만약 이날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면, 바로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은 현재 머무는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나와 형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시 구치소에 수감돼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57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상태임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 부분이 파기 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경영 참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 회장의 공백이 3년째로 장기화되면서 CJ그룹 곳곳에서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J그룹은 지난해 2조 4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집행 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약 79%에 불과했다. 2013년 역시 계획(3조2400억원) 대비 20%가량(6400억원)이 차질을 빚었다.

동부산테마파크 등 수년 동안 추진해온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됐을 뿐 아니라 CJ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활발한 M&A(인수합병) 활동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사결정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특경가법 상 배임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형법상 배임혐의 적용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무죄취지의 판결은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임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여서 대출금 전액을 이미 상환하고 보증이 해소된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죄취지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경우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CJ그룹 역시 감형과 집행유예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들은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본 부동산 배임 공소사실이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잘 준비할 계획"이라며 집행유예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재계 역시 파기환송을 통해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징역 3년부터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이 회장의 경우 파기환송을 통해 일부 무죄를 이끌어낸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참이슬16.9' 부산 공략 나섰다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부산 시장 공략을 위해 알코올 도수 16.9도의 소주를 출시했다.

하이트진로는 11일 '참이슬16.9'를 부산지역에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360㎖ 용량에 출고가격은 961.7원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같은 도수의 '쏘주가답다'를 출시했지만 무학의 '좋은데이'에 밀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신제품으로 다시 한 번 부산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참이슬16.9는 최적의 목넘김이 가능한 알코올이 16.9도로 특허 공법인 천연 대나무 활성숯 정제공법을 적용해 부담 없는 향, 숙취가 없는 깨끗한 맛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16.9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가수 아이유를 모델로 한 광고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부산 중심 상권에 팝업스토어 '이슬포차'를 운영하며 대대적인 시음행사를 열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참이슬16.9는 순하고 부드러운 소주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이라면서 "부산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발판으로 향후 주변 지역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매장 운영권 획득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은 서울메트로가 실시한 '역구내 화장품 전문매장 임대차' 입찰에 참여해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최근 서울메트로의 역구내 화장품 전문매장 2건 임대차(A그룹·B그룹 각각 34개 매장)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을 받았다.

샤넬화장품,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 철수

프랑스의 대표 명품 브랜드 샤넬 화장품이 이달 부터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모든 매장을 철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는 이달 시작된 면세점 3기 사업을 앞두고 각 업체와 입점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매장 철수를 결정했다.

CJ푸드빌, 베트남 '행복베이커리' 오픈

CJ푸드빌(정문목)의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으로 개설된 베트남 CJ제과제빵학과가 현지에서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CJ푸드빌 뚜레쥬르의 선진 제과제빵 기술과 매장 운영 노하우를 이전한 베이커리숍 '행복베이커리'가 1년5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최근 문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네스카페, 캡슐 커피 머신 '스텔리아' 세계 최초 출시 캡슐 커피 1위 브랜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는 캡슐커피 머신 신제품 '스텔리아(Stelia)'를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캡슐 커피 시장이고 한국 소비자의 디자인 안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스텔리아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스카페 제공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 '카페 아다지오 롤'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가 냉장 롤케이크 '카페 아다지오 롤'을 10일 출시했다.

카페 아다지오 롤은 깊고 진한 커피 맛이 촉촉하게 담긴 롤케이크 시트에 생크림과 마스카포네 치즈를 넣었다. 또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커피 바리스타를 콘셉트로 카페 아다지오 롤을 귀엽고 세련된 캐릭터로 표현했다. 가격은 9500원이다.

젤리밥, 출시 50일만에 100만개 돌파

오리온(대표 허인철)은 고래밥의 바다 동물 캐릭터를 젤리로 만든 신제품 '젤리밥'이 출시 50일만에 100만개가 팔렸다고 10일 밝혔다.

누적 매출은 10억원을 돌파했다.

젤리밥은 별도의 광고 없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입소문 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티몬·경기관광공사와 관광상품 판로 확대

티몬(대표 신현성)은 경기관광공사(대표 홍승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관광상품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티몬은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축제와 행사 온라인 홍보,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 업무제휴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가을패션의 완성 '트렌치코트'

좁아진 깃·경쾌한 실루엣으로 세련되게

피코트·패딩 조합 '밀리터리룩' 톤온톤 프린트 패턴 등 제안

트렌치코트의 계절인 가을이다. 가을 패션의 완성은 아우터의 제왕 '트렌치 코트'다.

삼성물산 패션부문(대표 윤주화)은 올 가을 정통적인 개버딘 소재부터 가벼운 소재감의 베이스볼 변형 사파리형태로 한 층 경쾌한 실루엣을 살린 스타일 등을 다양하게 제안했다.

남성복에서는 준지의 트렌치코트를 꼽았다. 준지는 정교한 테일러링과 클래식함을 기반으로 모던하면서도 시크한 밀리터리룩의 트렌치코트다. 카키컬러를 메인으로 블랙, 네이비, 화이트 컬러의 매칭과 함께 피코트, 패딩 등 아이템 간의 조합을 통해 뉴 밀리터리룩을 선보인다.

빈폴레이디스는 클래식한 감성의 정통 트렌치코트부터 모던하고 컨템포러리한 감성의 현대적 감각의 트렌치코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길이나 소재, 컬러와 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컬러는 클래식한 정통 베이지와 네이비 뿐만 아니라 와인, 카키, 그린 등으로 출시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대표 박동문)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의 트렌치가 유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단 또한 심플한 한가지 컬러보다는 개성을 드러내는 프린트 패턴을 톤온톤으로 적용해 옷 입은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게 디자인한 제품이 눈에 띌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 트렌치코트로는 커스텀멜로우의 가을 리버시블 트렌치 코트가 제안됐다. 이 패턴을 코트 전면에 프린트해 독특한 개성을 보인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의 맥코트 디자인으로 넉넉한 핏감이 특징이다. 겉감에는 프린트로, 안감은 하나의 컬러를 적용해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다.

여성복의 경우 브라스 버튼(금속 단추)이 돋보이는 피코트와 재킷을 시작으로 포근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더한 퍼(fur)코트 또한 눈 여겨 봐야 할 아이템으로 꼽았다.

LF(대표 구본걸)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트렌치코트 대신 상대적으로 편안히 걸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변형된 스타일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커스텀멜로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헤지스. /LF

질스튜어트뉴욕 남성복은 단추를 한 줄로 달아 싱글 코트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이 많이 출시됐다. 또 라펠(깃)의 폭이 좁고 벨트를 제거해 라운드 티셔츠나 캐주얼 셔츠 등의 복장에 편하게 매치할 수 있는 제품도 늘었다.

닥스는 남성 트렌치 코트의 길이가 짧아지고 전체적으로 슬림한 라인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유행에 맞춰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에 허리 라인이 슬림하게 표현된 트렌치코트를 입으면 세련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빈폴레이디스. /삼성물산 패션부문

부드러움 탐내는 男, 편안함에 푹 빠진 女

남성은 부드러운 클래식, 여성은 '스포티 룩'에 스니커즈. 올 가을 신발 트렌드다.

남성 구두는 클래식 디자인에 앞부분은 볼륨감있는 라운드 토(Toe)를 접목한 구두가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강제화(대표 김경덕)가 선보인 브라운 컬러의 리갈 플레인 토 구두는 라운드 토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부드러운 느낌을 더해준다.

브라운 플레인 토 구두를 신을 때는 차콜 그레이 같은 무채색 계열의 수트에 레드 계열의 넥타이를 선택해 포인트를 준다면 가을 남성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뾰족구두 보단 스니커즈 평범함·편안함이 트렌드"

랜드로바 그랜드 슬램.

금강제화 리갈 플레인토.

단정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주고 싶다면 클래식 착장의 기본 아이템인 옥스퍼드 스타일의 스트레이트 팁 구두가 좋다.

특히 리갈 스트레이트 팁 구두는 토 캡이 씌워진 부분에 일자 모양과 깔끔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도회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 때 짙은 네이비 컬러의 수트과 넥타이를 톤온톤 매치하면 안정적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 완성된다.

흔한 레이스업 구두와 차별화 된 남다른 가을 신사의 매력을 뽐내고 싶다면 더블 몽크 스트랩 구두가 제격이다. 두 개의 스트랩이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주는데 이때 패브릭 수트와 폭이 좁은 네로 카모플라주 패턴 넥타이를 매치한다면 남다른 패션 센스를 연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평소 캐주얼 룩을 자주 입는 남성이라면 발목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추천한다. 복숭아뼈에 가볍게 닿는 길이의 앵클 부츠는 활동성과 보온성이 좋을 뿐 아니라 가을 재킷과도 자연스럽게 매치할 수 있어 남성 패션피플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발목을 완전히 감싸는 워커 부츠는 빈티지한 매력을 선사한다. 유니크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부츠의 밑창에 다양한 컬러와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을 추천한다.

이런 부츠를 신을 때는 바지 밑단이 발목을 슬쩍 덮도록 연출하거나 부츠 끝에 겨우 닿을 만큼 밑단을 접어 올린 뒤 크롭팬츠에 패턴이나 컬러가 돋보이는 양말을 매치하면 자유로워 보이는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여성은 스니커즈부터 슬립온까지 활동적이면서 편안한 신발을 활용해 스타일을 연출하는 이른바 '스포티 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층 더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스포티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스포츠의 역동성과 자유로운 스타일에 포인트가 되어 줄 스니커즈를 활용해보자.

스니커즈는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우러져 스포티 룩을 연출하기 좋다. 특히 발목이 드러나는 모던한 느낌의 가죽 스니커즈는 스포티한 느낌과 가죽 소재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데일리 패션으로 제 격이다. /박상길 기자

귀농·귀촌 노하우 한 자리에

K-Farm 2015 귀농귀촌 박람회

'제2인생설계를 위한 귀농귀촌박람회(K-Farm2015)'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최근 '삼시세끼', '인간의 조건-도시 농부'등 쿡방 열풍이 거세다. 농업의 가치가 주목 받으며 일자리 창출로 농촌 창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10~12일 킨텍스서 열려 농기계·농자재 특별체험 전원주택 분양 상담 등 제2 인생설계 길라잡이

K-Farm2015 귀농귀촌박람회 홍보영상 캡처.

'슬로 라이프(Slow Life)'가 고조되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제2의 인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곳에선 귀농귀촌, 농기계와농자재, 전원주택등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귀농귀촌지자체관을 비롯해 ▲농기계·농자재특별관 ▲전원주택분양홍보관 ▲귀농귀촌체험관 등 전문적이면서 다양한 행사들로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정하우징 관계자는 "100세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2인생에 대한 대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귀농귀촌이 은퇴 후가 아닌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의미로 변화되면서 이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제2 인생설계를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힐링박람회 - Eco Show 2015'와 동시 개최되어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먹거리와 홈&리빙 제품등을 선보이며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사전등록을 하면 동시 개최되는 행사를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행사문의: 홈페이지(www.2nd-life.kr), 전시사무국(T: 02-569-2112)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아이 입맛 안성맞춤 간식레시피 공개

유한킴벌리

'일맘 응원' 푸드토크 이벤트 카카오스토리 댓글로 신청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가 푸드토크 이벤트에 참여할 일맘들을 모집한다.

이번 이벤트는 0에서 36개월 자녀가 있는 일맘이 대상이다.

'우리 아이 잘 먹는 식단&간식'을 배워보며 일맘들이 함께 모여 푸드 토크를 진행한다.

경력 15년의 윤민수 셰프와 함께 진행하는 푸드 클래스는 이유식을 끝내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아기들을 위한 재미있는 식단과 아이와 함께 만들어보는 도시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9일 토요일 10~1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일맘이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일맘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ch/1mom)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푸드 이벤트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유한킴벌리가 준비한 그린핑거 선물세트도 증정된다. 매월 '일맘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콘텐츠는 유한킴벌리 일맘스토리 블로그(blog.naver.com/yk1mom)와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ch/1mom), 그리고 페이스북(facebook.com/1momkwin)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10월 7일에는 일맘들의 마음에 부는 작은 바람, 소풍(小風)이라는 주제로 '일맘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강연과 토크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한킴벌리 홈페이지(www.yuhan-kimberly.co.kr)의 '일맘컨퍼런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갱년기 건망증' 방치했다간 치매 부른다

닥터 Q&A

Q. 갱년기에 더 심해지는 건망증, 치매 초기 증상인가요?

A. 갱년기에는 안면홍조, 발한 등 외부에 확연히 드러나는 증상이 있는 반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말 못할 증상들도 다양하다. 갱년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깜박깜박하는 건망증도 마찬가지다. 핸드폰을 냉장고에 두고 찾거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없어 온 집을 헤매고 다니기 일쑤다.

나영철 원장 (황금사과 갱년기클리닉)

- 대전대학교 한의학 박사 (병리학 전공)
- 前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외래교수
- 現 오행발효한약 연구소 소장
- 現 오행약침연구회 회장
- 現 대한실용한의학회 회장
- 現 안산 '사랑의학교(야학교)' 교장 (1995설립~현재)

이렇듯 건망증이 심해지면 자신이 치매 초기 단계는 아닌지 걱정이 든다. 갱년기 건망증과 치매는 확연히 다르지만 갱년기에 나타나는 건망증을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어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증상이 건망증으로 인한 것인지 치매로 인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치매는 이전에 정상적인 인지기능으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던 사람이 다양한 뇌 질환에 걸려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생활은 물론 기초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증상이 심해지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정신연령이 4~5세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간단한 셈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반면 건망증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을 잊는 것일 뿐 조금의 힌트만으로도 금방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스스로 건망증을 인지하고 증상완화를 위해 메모하는 습관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입으로 할 일을 되뇌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변에서는 건망증이 나타날 때 핀잔을 주거나 한숨을 쉬는 등 당사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주변인들의 이런 반응은 불안감을 일으켜 기억을 떠올리는 데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젊어서부터 혈관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 음주를 가급적 피하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평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혈관을 지저분하게 할 만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뇌졸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치매발생의 중요한 억제수단이 된다.

갱년기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두드러지면 갱년기 전문 치료 기관을 방문해 진맥과 검진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증상을 확인한 후 육계(계피)와 황련을 주 재료로 한 황춘탕(黃春湯)을 복용하면 개선효과가 높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부담 없는 가격… 한가위 인심 '풍성'

롯데칠성음료

베스트셀러 델몬트 중심 1만원대 중저가 세트 구성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성히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주스 선물세트를 내놨다.

이번 롯데칠성음료 추석 선물세트는 국내 1등 주스 브랜드 '델몬트' 제품 중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다.

'델몬트 주스 설 선물세트'는 9000원대부터 1만3000원대의 부담없는 중저가 세트로 명절 분위기를 담은 고급스러운 포장재를 사용했다.

델몬트 병 선물세트는 명절마다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셀러 제품 위주로 구성했다.

다양한 구성의 프리미엄 주스를 넉넉한 1ℓ 용량으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오렌지·포도·사과 3본입 세트', '프리미엄 오렌지·포도·제주감귤 3본입 세트'를 포함해 제주감귤 100%를 사용해 제대로 된 감귤주스의 맛을 낸 '제주감귤 주스 3본입 세트' 등 3종으로 구성됐다.

1.5ℓ 페트는 한국의 미가 물씬 풍기는 보석함 느낌을 살려 포장재를 고급스럽게 꾸민 '오렌지·포도·망고·토마토 4본입 세트'와 단아한 고급 보자기 모양의 선물상자에 담긴 '포도·매실·제주감귤 4본입 세트' 2종이 있다.

이 밖에도 프리미엄 오렌지·포도·망고·감귤 주스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게 180㎖ 소용량 병으로 구성한 '델몬트 소병 12본 세트' 2종도 명절 분위기를 듬뿍 담은 포장재로 선보였다.

1982년 이후 3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온 '델몬트 주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조사한 '201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Brand Power Index, K-BPI)'주스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델몬트 주스'는 1999년부터 17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켜 '골든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정은미 기자

star bag

日 투어 콘서트 시작

그룹 **위너**가 일본에서 콘서트 '위너 재팬 투어 2015(WINNER JAPAN TOUR 2015)'를 시작했다. 지난 6일 일본 시가 비와코홀과 9일 도쿄 나카노 선프라자에서 '위너 재팬 투어 2015' 공연을 차례로 열고 현지 팬을 열광시켰다.

두 번째 미니앨범

가수 **지소울**이 10일 자정 두 번째 미니앨범 '더티(Dirty)'를 발표했다. 몽환적인 비트와 지소울의 소울풀한 목소리로 채운 딥 하우스(deep house) 장르의 앨범이다. 타이틀곡 '미쳐있어 나(Crazy For You)' 등 5곡을 수록했다.

7년 만에 게스트 출연

방송인 **강호동**이 11일 밤 10시50분 방송되는 KBS2 '인간의 조건-도시농부'에서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MC가 아닌 게스트로 방송 출연은 '김정은의 초콜릿' 이후 7년 만이다.

S.E.S로 변신

걸그룹 **소나무**가 90년대 인기 아이돌 걸그룹 S.E.S로 변신한다. 소나무는 오는 12일 방송되는 MBC '쇼! 음악중심'에서 S.E.S의 '드림스 컴 트루(Dreams Come True)'로 무대에 오른다.

연말 콘서트 개최

밴드 **칵스**가 오는 12월 20일 서울 악스코리아에서 연말 단독 콘서트 '뉴 노멀라이즈(NEW NORMALIZE)'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중 발매를 앞둔 정규 2집 '더 뉴 노멀(THE NEW NORMAL)'의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이다.

저만의 색깔, 확실한가요?

영화 '오피스' 배성우

누군가 올 여름 한국영화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배성우(42)라고 답할 것이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무려 3편의 출연 영화로 관객과 만났기 때문이다. '베테랑'에서는 범죄에 연루되는 중고차 사장으로 출연해 특유의 코믹 캐릭터를 선보였다. '뷰티 인사이드'에서는 21명의 배우가 연기한 우진 중 한 명으로 등장해 존재감을 남겼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작품이 있다. 지난 3일 개봉한 '오피스'(감독 홍원찬)다.

배성우를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감초 캐릭터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오피스'에서 그의 첫 등장은 사뭇 충격적일 것이다. 그는 극중 회사 영업부 과장인 김병국으로 출연한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일가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웃음기를 지운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슬픔이 공존한다. 배성우가 그동안 보여준 적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그곳에 있다.

현실에서 상상하기 힘든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하지만 배성우는 생각보다 쉽게 출연을 결정했다.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어도 김병국 과장이 느꼈을 스트레스의 강도와 고민 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출연 분량과 상관없이 사건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라는 점에 마음이 움직였다. "배우로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김병국은 대본에서부터 이미 입체적인 성격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기하기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요(웃음)."

올 여름 3편 연이어 개봉
웃음기 버리고 공포 연기

어릴 적부터 영화배우 꿈
중심 잡힌 배우가 되고파

영화는 김병국 과장이 사라진 뒤 회사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다. 배성우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표정으로 불현듯 나타나 관객에게 깊은 공포를 남긴다. 그러나 배성우는 김병국 과장이 단지 무서운 캐릭터로만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공포 뒤에 짙게 배인 슬픔에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배성우의 바람이다.

"김병국 과장은 일상이 공포였을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슬픈 거죠. 그게 잘 표현됐으면 해요. 궁극적으로는 영화를 본 뒤 공감을 통한 슬픔이 남기를 바라며 연기했으니까요."

배성우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연극을 하며 배우에 대한 흥미를 가졌다. 하지만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조금 엉뚱한 이유에서였다. "10대 때였을 거예요. 장래희망을 물어보는데 다들 재미없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배우가 될 거예요'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웃더군요. 그때부터 마음이 더 배우로 가게 됐어요(웃음)." 그 대답은 배우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진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어떤 역할을 맡아도 편하게 연기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상한 인물이든 보편적인 인물이든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늘 같은 방식으로 캐릭터에 접근하죠."

가을에도 배성우의 활약은 계속된다. '더 폰'과 '특종: 량첸살인기'가 10월 동시기 개봉을 확정해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부자들'도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옴니버스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가제)도 촬영 중이다.

누구보다 바쁘게 활약 중인 배성우의 꿈은 "중심이 잡힌 배우"가 되는 것이다. "다양한 역할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제 색깔, 확실한가요?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의 귀환

내달 정규 11집 앨범 발표

가수 신승훈(사진)이 오는 10월 말 정규 11집 앨범을 들고 컴백한다. 9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이다.

신승훈은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는다. 1990년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등을 담은 1집은 데뷔 앨범 최초로 밀리언셀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이후 2집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14주 연속 1위, 5집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니가 있을 뿐'으로 판매량 247만장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발라드의 황제'로 입지를 굳혔다.

또한 신승훈은 지금까지 발표한

10장의 정규 앨범 모두 골든디스크 시상식 본상 수상과 두 번의 대상이라는 기록과 함께 최다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유일한 가수이기도 하다. 9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11집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소속사 도로시 컴퍼니는 "새 앨범에는 신승훈 특유의 발라드와 지난 9년 동안의 프로젝트 앨범 '쓰리 웨이브즈 오브 언익스펙티드 트위스트(3WAVES OF UNEXPECTED TWIST)'를 통해 얻은 새로운 음악을 다양하게 담았다"며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앨범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승훈은 현재 10월 말 컴백을 위해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장병호 기자

OFFICIAL SELECTION
FESTIVAL DE CANNES
제68회 칸영화제 특별상
★★★★★
삶의 여정을
우아하게 탐구하는
걸작!
- CANNES
감동적이고 섬세한,
괴물 같은 작품!
- THE PLAYLIST
절묘한 유머와
드라마의 조합!
- HOLLYWOODREPORTER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할
어느 날
나의 어머니
mia madre
〈아들의 방〉 난니 모레티 감독 작품
절찬상영중,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세이상관람가 수입·배급 (주)티캐스트 tcast cinecube

60년대 이후 한국화 한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멈추고, 보다'展

허건의 '삼송도'.

국립현대미술관은한국화 소장품 특별전 제1부 '멈추고, 보다' 전을 내년 1월 24일까지 과천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8일 개막한 '멈추고, 보다' 전은 한국화로 분류돼 있는 미술관 소장품 905점 중 주요 작품을 엄선한 한국화 소장품 특별전의 제1부 전시회다.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추상, 인물, 역사와 삶, 산수·풍경·화조, 지필묵 작품 등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화 소장품 특별전은 한국화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한국화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병호 기자

마법같은 동화가 현실로

뮤지컬 '신데렐라' 내일 첫 선
화려한 무대·의상 체인지 백미
안시하·엄기준 등 호화 캐스팅

동화로 잘 알려진 '신데렐라'가 뮤지컬로 국내 무대에 처음 오른다. 공연제작사 엠뮤지컬아트가 기획·제작하는 뮤지컬 '신데렐라'는 오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에 국내에서 초연되는 뮤지컬 '신데렐라'는 2013년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작품이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왕과 나' '남태평양' 등을 쓴 작곡가-작가 파트너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이 1957년 TV 방송용 뮤지컬로 만든 것을 뮤지컬 '제너두'의 더글라스 카터 빈이 각색했다. 토니상, 드라마 데스크상, 외부 비평가협회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국내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신데렐라'는 화려한 무대와 마법 같은 의상 체인지가 백미로 꼽힌다. 마법으로 누더기가 드레스로 바뀌고 호박, 생쥐, 여우가 각각 마차, 말, 마부로 변한다는 동화 속 내용을 무대에서 그대로 실현한다. TV나 영화 CG에 익숙한 관객에게 뮤지컬만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리에도 신선함을 더했다. 신데렐라는 자신이 반한 왕자 크리스토퍼에게 적극적으로 유리구두를 남기는 당찬 아가씨로 묘사된다. 왕자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왕이 될 자질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신중한 청년으로 등장한다. 신데렐라의 의붓언니 중 하나인 가브리엘은 혁명가 장 미쉘과 사랑에 빠져 신데렐라와 비밀을 공유하는 캐릭터다. 원작과 다른 설정이 뮤지컬만의 재미를 배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안시하·서현진·윤하·백아연이 신데렐라를, 엄기준·양요섭(비스트)·산들(B1A4)·켄(빅스)이 크리스토퍼를 연기한다. 요정대모 역은 서지영·홍지민, 의붓어머니 마담 역은 이경미, 의붓언니 가브리엘 역은 가희·정단영, 또 다른 의붓언니 샬롯 역은 임은영, 크리스토퍼를 대신해 국정을 돌보는 집정관 세바스찬 역은 김법래·장대웅, 가브리엘과 사랑에 빠지는 혁명가 장 미쉘 역은 박진우, 크리스토퍼의 근위관 핑클턴 경 역은 황이건이 맡는다.

작품 프로듀서를 맡은 엠뮤지컬아트 김선미 대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기존 동화 속 신데렐라와는 달리 신선한 캐릭터 설정과 재치 있는 스토리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며 "브로드웨이에서 인정 받은 작품성과 감동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의상과 무대에 심혈을 기울여 화려하고 신기한 마법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2-764-7857~9)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역사 되짚어보는 배달의 기수들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25분

해외 거주 중인 한국인에게 따뜻한 밥상을 배달하는 '배달의 무도' 네 번째 이야기다. 일본 우토로 마을에서 1세대 할머니와 만났던 하하와 유재석은 하시마 섬을 찾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한 섬이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함께 역사와 민족의 수난을 되짚어 본다. 정형돈과 광희는 60~70년대 독일로 간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을 찾아 추억의 맛을 선물한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JTBC '라스트'
금요일 오후 8시30분

해진을 필두로 한 노숙자 무리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혀 온 간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혈투를 벌인다. 태호는 나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 SBS '정글의 법칙'
금요일 오후 10시

니카라과에 간 하니와 잭슨은 사이 좋은 오누이가 된다. 구운 바나나 껍질을 까면서 손톱에 검은 때가 껴버린 하니를 본 잭슨은 먹고 있던 옥수수 심을 이용해 손톱 때를 제거해준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금요일 오후 11시25분

국민 간식 떡볶이의 3대 명인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명인들은 떡볶이를 비롯해 김밥, 순대, 수제 튀김, 어묵, 핫도그 등 다채로운 분식들로 화려한 '요리쇼'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올`리브
12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어리 이야기 2 15:00 2015 K리그 클래식 16:00 역사저널 그날 (재) 17:10 황금의 펜타곤 시즌3 18:00 특집 다큐콘서트 아름다운 동행 19:10 다큐 공감 20:00 이어령의 백년서재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다큐멘터리 몬순 22:35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3:45 특집 콘서트 7080	11:3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2:2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3:25 개그 콘서트 (재) 15:00 슈퍼맨이 돌아왔다 16:45 나를 돌아봐 스페셜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3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3:50 별난 며느리 (재)	11:45 무한도전 스페셜 13:05 엄마 (재) 14:15 내 딸 금사월 (재) 15:25 2015 DMC 페스티벌 특집 쇼! 음악중심 16:55 우리 결혼했어요 18:25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첫회)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0 앙코르 2015 DMC 페스티벌 여러분의 선택! 복면가왕	10:50 접속! 무비월드 12:10 애인 있어요 (재) 13:20 미세스캅 (재) 15:50 아빠를 부탁해 (재) 17:00 오!마이 베이비 18:25 질주본능 더 레이서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23:10 1000회 특집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24:15 정글의 법칙 (재)	10:1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30 비정상회담 (재) 13:2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14:3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7:10 비정상회담 (재) 18:30 라스트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라스트 21: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00 박스 24:25 마녀사냥 (재)	10: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5:30 엄지의 제왕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알토란 (재)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3:00 속풀이쇼 동치미 24:50 천기누설 (재)	11:30 두번째 스무살 (재) 12: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4:40 수요미식회 (재) 16:10 젠틀맨리그 (재) 17: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9:10 두번째 스무살 (재) 20:30 두번째 스무살 21:40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23: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1:00 오늘 뭐 먹지? 12:00 2015 테이스티로드 13:00 올리브쇼 2015 14:10 비법 16:20 올리브쇼 2015 16:50 2015 테이스티로드 17:30 오늘 뭐 먹지? 18:30 올리브쇼 미니 NEW 19:30 집밥 백선생 21:00 2015 테이스티로드 22:00 오늘 뭐 먹지? 23:00 2015 테이스티로드 24:00 비법
13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스카우트 2 14: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5:00 2015 KBS대기획 넥스트 휴먼(재) 17:10 미디어 인사이드 17:40 열린음악회 19:10 법원 도전 골든벨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다큐멘터리 몬순 22:35 역사저널 그날 23:25 취재파일 K 24:05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어송포유 24:55 영화가 좋다 (재)	10: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3:15 엄마 (재) 14:20 내 딸, 금사월 (재)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시사매거진 2580 24:05 2015 DMC 페스티벌 파이널 콘서트 상암에서 놀자	09:30 TV 동물농장 10:50 애인 있어요 (재) 12:10 2015 한국오픈 FR 천안위성생중계 13:10 용팔이 (재) 15:40 SBS 인기가요 16: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10 자기야-백년손님 (재)	10:20 박스 (재) 11: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3:00 JTBC 뉴스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비정상회담 (재) 15:5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7:10 유자식상팔자 스페셜 18:3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21:45 김제동의 톡투유 23: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4:00 2015 LPGA 에비앙 챔피언십	10:00 MBN 뉴스와이드 2부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3:5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5:40 아궁이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재) 19:40 MBN 뉴스 8 20:3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40 천기누설 23:00 알토란 24:40 아궁이 (재)	11: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3:00 두번째 스무살 (재) 15:40 집밥 백선생 (재) 17: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30 문제적 남자 24:00 처용 2 (재)	10:50 2015 테이스티로드 11: 50 올리브쇼 2015 13:00 오늘 뭐 먹지? 14:00 2015 테이스티로드 15:00 비법 16:30 올리브쇼 2015 17:20 오늘 뭐 먹지? 18:50 2015 테이스티로드 19:50 비법 21:0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22:20 2015 테이스티로드 23:20 오늘 뭐 먹지? 24:00 언제나 칸타레2

옷 속으로 숨어버린 공 때문에 실점

스포츠 주간 해프닝

지난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와 LG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공이 사라지는 바람에 실책을 기록한 보기 드문 플레이가 나왔다.

LG 유강남은 이날 경기 2회말 2사 1, 3루에서 3루수 쪽으로 땅볼 타구를 날렸다. 한화 3루수 권용관은 몸으로 타구를 막아냈지만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시야에서 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을 찾아 주변을 살폈지만 감쪽 같이 자취를 감췄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내줬다. 유격수 강경학이 재빨리 다가와 공이 옷 속에 있다는 표시를 했다. 권용관은 허탈한 표정으로 유니폼 속으로 들어간 공을 꺼냈다. 기록원의 최종 판단은 3루수 실책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실책으로 점수를 내준 한화는 결국 이날 1-8로 전날에 이어 2연패를 당했다.

①한화 권용관. ②경기장에 마련된 구급차. ③도널드 트럼프. /뉴시스·한국프로축구연맹·AFP연합뉴스

골든타임의 좋은 예

프로축구에서 경기 도중 선수가 의식을 잃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동료와 의료진의 발 빠른 조치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

K리그 클래식 광주 FC의 수비수 정준연은 지난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광주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전반 24분 인천이 페널티박스 밖에서 얻은 프리킥을 광주 골문을 향해 날리자 광주 골키퍼 최봉진과 수비수 정준연이 이를 걷어내려고 동시에 뛰어올랐다. 최봉진이 이 공을 펀칭하는 과정에서 정준연과 충돌한 것이다.

정준연은 떨어지면서 그라운드에 머리를 부딪쳤고 곧바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위기의 순간 동료 선수들이 재빨리 그의 입을 열어 기도가 막히는 것을 막았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그라운드로 나와 응급 처치를 시도했다. 신속한 대처였다. 덕분에 그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인종차별로 무산된 대회

메이저 골프대회 우승자들을 초청해 열리는 그랜드슬램 대회가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와의 충돌로 무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4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프로골프협회(PGA)는 인종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트럼프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대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뒤 대체 장소를 구하지 못해 아예 대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 대회는 다음달 20일과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널드 트럼프 내셔널 코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PGA는 "시간적 지리적 문제 때문에 올해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회가 열렸다면 마스터스와 US오픈 우승자 조던 스피스(미국),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잭 존슨(미국), PGA챔피언십 우승자 제이슨 데이(호주) 등 올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손흥민, 선덜랜드전으로 EPL '특급 데뷔'

주말 해외파

기성용·이청용도 주말 출격 대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손날두' 손흥민(23·사진)이 데뷔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번 주말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의 새로운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는 13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9시30분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2015-2016 리그 5라운드 선덜랜드전에 나선다. 이제 워크퍼밋(노동허가증)이 발급돼 이적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손흥민은

이적료 3000만 유로(약 408억원)에 걸맞은 활약을 펼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

토트넘은 4라운드까지 3무1패를 기록, 전체 20개 팀 가운데 16위에 처진 상태다. 특히 지난 시즌 득점랭킹 2위까지 오른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의 골 침묵이 아쉬운 대목이다. 올 시즌 케인을 중심으로 팀 공격진을 재편하려는 토트넘으로서는 빠른 발과 정확한 슈팅으로 케인을 받쳐줄 수 있는 손흥민의 존재가 필요하다. 때문에 빠른 데뷔전을 치르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PL의 '쌍용'인 기성용은 오는 12일 오후 11시 왓포드전을, 이청용은 같은 날 동시간에 강호 맨체스터시티전을 각각 앞두고 있다. /하희철 기자

알리 왕자, FIFA 회장 선거 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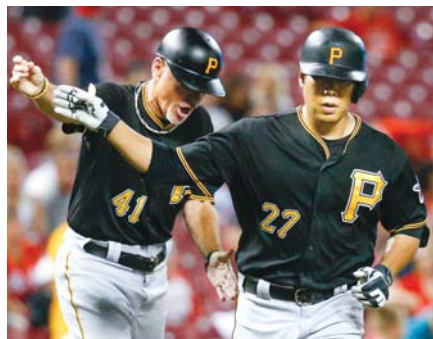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39·사진)가 차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알리 왕자는 10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의 고대 로마 원형극장에서 300여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FIFA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 브라질 지쿠 등 4명으로 늘어났다.

알리 왕자는 지난 5월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제프 블라터 현 회장에 패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을 지지했던 플라티니 회장을 블라터 회장의 후계자라며 '낡은 FIFA'로 규정하고 FIFA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FIFA에 너무 오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알리 왕자는 "FIFA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싸울 용기를 갖고 있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알리 왕자는 FIFA의 의사결정을 스위스 취리히 본부에서 각국의 협회로 이전하고 축구 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축구의 확대와 심판에 대한 지원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희철 기자

강정호, 메이저리그 첫 만루홈런

10일(한국시간) 미국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서 강정호가 6회초 만루홈런을 친 뒤 베이스를 돌며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추신수, 8경기 연속 출루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 진출 후 첫 만루포를 쏘아 올렸다.

강정호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4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8에서 0.287로 조금 떨어졌다.

강정호는 1-1로 맞선 6회초 1사 만루, 신시내티 오른손 선발 케비어스 샘슨의 시속 150㎞짜리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을 넘어가는 만루홈런을 쳤다.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기록한 첫 만루홈런이다. 피츠버그의 올 시즌 첫 만루포이기도 하다.

강정호는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들어선 3번의 타석에서 모두 범타로 물러났다. 하지만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만루포는 결승타로 기록됐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만루홈런 덕에 5-4로 승리했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안타를 치지 못했지만 8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했다. 같은날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원정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사구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254에서 0.253으로 조금 낮아졌다. 5경기 연속 안타도 마감됐다.

텍사스는 0-6으로 완패했다. /하희철 기자

생활 영어

It was a close call

A: Didn't sleep a wink last night.

B: Why not?

A: I had a deadline to meet.

B: Did you make it on time?

A: Of course.
Breaking deadlines would ruin my reputation as a freelancer.

B: I agree.

A: Well, **it was a close call**.

B: Go home and catch up on some sleep.

A: I will. Thx.

B: Actually, now you're about to harm your reputation.

A: ???

B: Don't you remember?
We were supposed to meet 1 hour ago!!!

A: Ugh… Stick around. I'm on my way.

십년감수했어

A: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B: 왜?

A: 마감 지키느라고.

B: 제때 마쳤어?

A: 당근.
마감을 어겼다간 프리랜서로서 평판 끝이야.

B: 맞아.

A: **십년감수했지 뭐야.**

B: 집에 가서 밀린 잠 좀 자.

A: 응. 고마워.

B: 실은 지금 네 평판이 나빠지려는 참이야.

A: ???

B: 기억 안나?
우리 한 시간 전에 만나기로 했잖아!!!

A: 억… 거기 있어. 금방 갈게.

* Thx : Thanks의 인터넷 약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9				3	6
	3			8	2			1
		5			6			
5			1				6	
9			8	6	3			5
	2				9			8
			4			9		
7			2	9			5	
4	5				7	2		

		3						
1			6		3	4		5
7		6					3	
	1		3	6				
6		5	7	4	1	9		8
				9	5		6	
	6					2		9
3		8	1		2			7
						1		

스도쿠 정답

2	8	7	9	5	1	4	3	6
6	3	4	7	8	2	5	9	1
1	9	5	3	4	6	8	7	2
5	7	8	1	2	4	3	6	9
9	4	1	8	6	3	7	2	5
3	2	6	5	7	9	1	4	8
8	6	2	4	3	5	9	1	7
7	1	3	2	9	8	6	5	4
4	5	9	6	1	7	2	8	3

9	5	3	8	2	4	7	1	6
1	8	2	6	7	3	4	9	5
7	4	6	5	1	9	8	3	2
2	1	9	3	6	8	5	7	4
6	3	5	7	4	1	9	2	8
8	7	4	2	9	5	3	6	1
5	6	1	4	3	7	2	8	9
3	9	8	1	5	2	6	4	7
4	2	7	9	8	6	1	5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아들이 특기·취미가 없어 고민입니다
경찰·과학기술 계통 진로 잡으시길

용트림 남자 89년 2월 15일 양력 20시10분경

Q 안녕하세요. 메트로 신문이 저희 동네 지하철역에 매일 아침 놓여 있어서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주 속으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여성 독자입니다.
아들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취미가 특출한 것도 아닙니다. 또 본인이 좋아하는 것 자체도 별로 없이 여러 가지 분야에 팔방미인처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제대로 정해서 매진해 나가야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애로가 없을텐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사주를 보면 그 안에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 상담을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A 사람은 누구나 젊었을 때부터 진로를 잘 잡아야 그에 따른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할 때 방향을 확실히 잡아 전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 때부터 적성검사를 여러 번 하기도 하는데 특별나게 어느 분야로 진로를 정해야 하는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아드님처럼 적성검사를 떠나서 본인이 좋아하거나 특기가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따라서 타고난 진로와 운명이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사주팔자 속에는 많은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사람의 팔자를 가늠하게 되는 기운이 복잡다양하게 섞여 있어 길흉화복을 점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며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때 운의 흐름이 승발 할 수 있는 분야로 선택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구조는 병화일간(丙火日干)이 인월(寅月)에 태어났는데 사주지지에 화국(火局:불로 무리를 이룸)으로 매우 신강(身强)한 사주입니다. '정오의 태양'과 같은 형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자아가 강하고 독존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염상지상(炎上之象)으로 대략 호탕하고 쾌활한데 '한참 내달리는 말'과 같아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생일지(生日支)에 양인(羊刃:양의 뿔)은 포태법상으로 제왕에 해당되므로 권력과 형을 주재하는 성분이 되며 연월지에 인사형(寅巳刑)을 놓아 권력과 형을 주재하는 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또는 과학기술계통으로 진로를 잡으세요. 역마살이 있으며 편관(偏官)과 정재(正財)가 승발하고 있으므로 기술계통으로 진로를 잡으면 박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1일 (음 7월 2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발전일로에 들어 섰습니다. **60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2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84년생** 윗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49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1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73년생**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세요. **85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50년생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됩니다. **62년생**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74년생** 변덕이 심한 상대를 주의하세요. **86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세요.

51년생 흑백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63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75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87년생**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기 힘든 하루입니다.

52년생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64년생** 순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76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88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합니다.

53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65년생** 아무 근심 없이 하루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77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89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합니다.

54년생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66년생**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78년생** 일보다는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90년생** 큰 일을 위해 작은 손실은 감수하세요.

55년생 중심이 되어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67년생**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호전됩니다. **79년생**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니 한결 수월합니다. **91년생**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으니 기다리세요.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이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세요. **69년생** 윗사람의 말을 잘 새기세요. **81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금전운이 좋으나 방심하지 마세요.

58년생 남의 눈을 의식해서 노력한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70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세요. **82년생** 다른 사람의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세요. **94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5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71년생**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야 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통신사 배불리는 단통법 개정해 소비자 이익 늘려야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한국의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하다.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골목상권 침해, 불법보조금 지급,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1000억원을 방치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10월 시행 1년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대한 평가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소비자의 단말기 부담 증가, 휴대전화 시장 위축과 이통사 직영점 확대에 따른 영세상권의 붕괴 등 단통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지난달 기준, 이통3사의 평균 지원금은 상한액(33만원)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는 초기 단말기 구입 부담이 늘어난 반면 이통사는 단말 지원금을 줄인 만큼 이익이 늘어났으니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냐"고 비판했다.

본지가 지적한 바 있듯 지난 6월 기준 일반 통신유통점은 1040곳이 줄어든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138곳이 늘었다. 재벌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넘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도 "중소 유통점이 폐업하고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정작 단말기 출고가는 내려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통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등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 역시 "단통법이 오히려 우회 보조금 등 시장교란을 부추기고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단통법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20%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선택약정할인은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보조금(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도록 한 제도로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지난 4월 기존 12%에서 20%로 할인율을 늘리면서 가입자가 급증해 8월 말 기준 175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나 유통현장에서는 이통사가 고의로 선택약정할인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할인 가입 회피로 이달 초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을 거론하며 "20% 요금할인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적용되는지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K텔레콤·KT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1000억원을 쌓아두고도 별 다른 환급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무려 109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사업자 3사의 경우 약 1136만건이 과오납금 됐고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론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통신사들의 노력 부재로 지난 5년 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인데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방통위 등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줄어들고 통신사와 제조사만 배불리는 허점 투성이 단통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장

社說

시리아 난민사태와 남북통일

시리아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각국이 홍역을 겪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위기라고 한다.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국가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회원국들에 촉구했지만, 회원국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번 난민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난민사태가 남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 국민은 모두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통일대박론'이 나오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통일이 뜻밖에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그야말로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 대량이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 수십만명 혹은 수백만명의 북한주민이 이탈할 경우 가장 먼저 찾을 곳은 한국과 중국이다. 이탈주민 가운데 절반만 내려와도 한반도 남쪽은 그야말로 북한난민의 홍수를 이루게 된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국으로 건너가려는 난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총력을 다해 난민유입을 막으려 할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통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북한의 경제수준이 지금보다는 더 향상돼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태 개선을 우리 한국의 힘으로 이끌어야 한다. 북한 주민이 통일 후에도 현재의 거주지에서 그대로 살면서 통일 한국의 국민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해서 사업장을 설치하고 주민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북한진출을 돕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동대문면세점 재벌 먹잇감되나

기자 수첩
박 상 길
<생활유통부>

두산그룹(회장 박용만)이 지난 2일 동대문 지역 쇼핑 명소인 두산타워(두타)에 면세점을 유치한다고 발표하자 인근 동대문시장 상인들과 지난 7월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던 중견업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면세점 특허에 핵심 요소인 지역 상인을 위한 상생 노력 등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일부 상인들은 관광객을 뺏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만난 동대문시장 한 상인은 "두산그룹이 지난 면세점 사업자 입찰 때 참여하지 않고 갑자기 마감 한달을 남겨 두고 뛰어든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면세점 중소기업 후보군이었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관세청이 동대문에 6곳의 사업자가 뛰어들었음에도 지역 안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투어에 넘겨 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았는데, 마감 한달을 앞두고 갑자기 두산이 뛰어들었다면 또다시 심사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또 "두산그룹이 시나리오 없이 뛰어들진 않았을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의 중소기업 후보군 중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두산그룹이 정부의 윗선과 접촉했을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두산은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인 지난 7일 뒤늦게나마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협의회와 '동대문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급조된 느낌이 없지 않다. 지난 면세점 사업에서도 강력한 낙찰 후보였던 신세계그룹이 남대문 상인에게 말로만 '상생'을 외치다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면세점의 사업 취지는 조세 수입을 포기해야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공익' 목적에 써야 한다.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재벌 대신 동대문 시장내 상인들의 영세 면세점이 유럽처럼 사후 면세점으로 활성화된다면 '공익'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이 매번 영세 상인들은 소외된 채 대기업들의 면세점 혈투장이 되도록 계속 지켜보기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커피, 자주마시면 치아건강 적신호

생활 건강

가을과 잘 어울리는 커피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차가 됐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커피를 자주 마시면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고 치과 전문의는 경고한다.

◆자주 마시면 치아 변색 가능성 높아져

커피로 인한 치아 변색을 막기 위해 커피를 마신뒤 곧바로 칫솔질을 해 착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칫솔질을 할 수 없다면 물이나 구강 청결제로 입을 고루 헹궈 커피의 색소 침착을 줄인다.

이미 치아가 누렇게 변했다면 미백치료로 희게 할 수 있다.

◆뜨거운 커피, 시린 치아 악화시켜

시린 치아의 걱정 없이 뜨거운 커피를 즐기려면 사전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치료는 시린 치아의 주원인인 마모된 법랑질을 메워주면 된다. 법랑질의 마모가 심각하지 않다면 마모된 치아 뿌리나 안층에 코팅제 역할을 하는 불소를 덮어 씌운다. 이러한 치료를 시행하면 통증 없이 5분 만에 시린 증상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마모가 심각한 경우에는 레진충전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좋다.

◆과도한 당분, 충치와 치주염 유발

커피에 포함된 타닌 성분은 충치를 예방한다. 타닌이 치아 표면을 깨끗이 씻어주어 세균이 치아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실 때에는 가급적으로 설탕과 프림 등을 적게 타서 먹는 것이 좋다. 또 설탕과 프림이 포함되어 있는 인스턴트커피 보다는 원두커피를 묽게 타서 마시는게 좋다. 하지만 이미 충치나 치주염이 생겼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움말: 신촌다인치과병원 임흥빈 병원장/치과의사

/최치선 기자 chisunti@

인 사

◇국가보훈처 △일반직 고위공무원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동재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남일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만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대성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부이사관 승진 ▷자본시장조사단장 김홍식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조성중
◇국민대 ▷입학처장 이채성
◇MBC ▷콘텐츠제작국 부국장 유정형 ▷디지털기술국 부국장 김완식 ▷홍보국 정책홍보부장 김재용 ▷콘텐츠제작국 콘텐츠제작1부장 장형원 ▷드라마국 드라마2부장 김진만 ▷드라마국 드라마4부장 이주환 ▷디지털기술국 기술관리부장 김영석 ▷보도국 국제부 LA특파원준비근무 이주훈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확정수익률 13%	계약즉시 확정수익금 지급 〈 잔금완납시 〉
실투자금 3,800만원	10년 임대차 계약서발행	현재 영업중 가동률 80% 〈 2015.4월 기준 〉

평택에서도 독보적인 투자상품!
지금 **평택 코업레지던스-호텔**을
홍보관에서 만나십시오!

| 미래가치 | 동북아 비즈니스의 최전방 요충지, 중국과의 최단거리 교역항, 수출물량 상승률 전국 1위의 평택항
| 투자가치 | 연 평균 500여만명의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100조 규모 삼성 고덕산업단지, 60조 LG 진위 산업단지
| 호텔가치 | 바다조권망 확보, 고품격 마감재 사용, 특급 실내공간, 장기투숙객 위한 객실별 취사 및 세탁 가능
| 교통가치 | KTX 신평택역 개통예정으로 강남 21분, 서해안 제 1·2고속도로 및 경부,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

문의 지방출장상담가능 02)6490-7566
청약계좌 하나은행 102-910040-86204 금액 :100만원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환불됩니다. 예금주 : 하나자산신탁

시행·시공사 (주)동우종합건설 자금관리대리사무사 하나자산신탁 호텔운영지원 CO'OP 코업 C&C